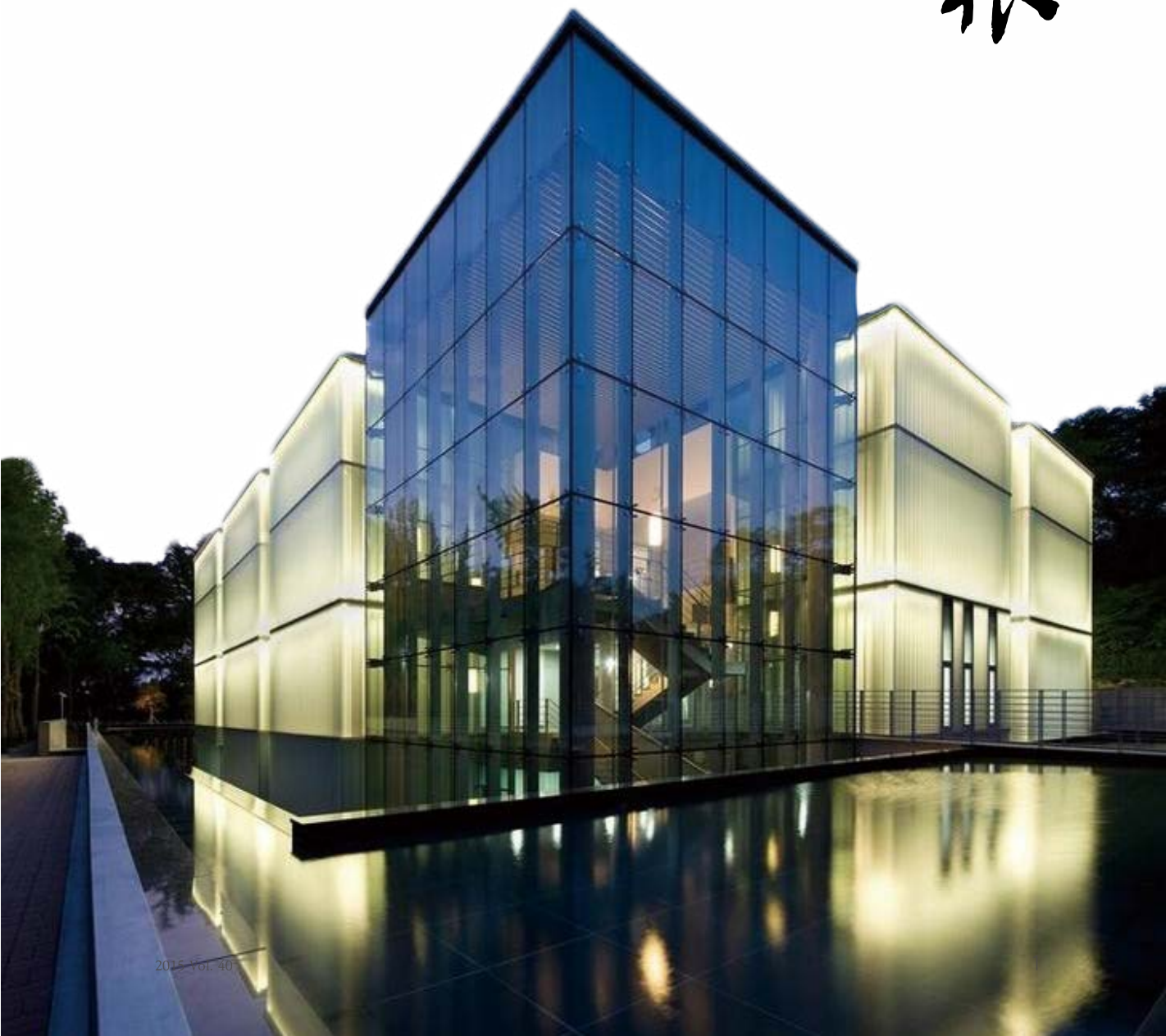


安重根

기획특집 한양성곽과 남산둘레길

파워리포트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실무현장 포커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울려 퍼진 나라사랑의 합성



순국 105주기 · 의거106주년

안중근의사 추모 · 기념사업 주요 내용

- 『대한국인 안중근 소식지(40호) 발간』 1월
- 교직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1월(동계), 7월(하계)
- 안중근 평화학교 · 체험교실 운영 1월~12월
- 제4회 안중근 자서전 독후감 대회 2월~11월
- 제13회 학생 글짓기 대회 2월~3월
- 안중근아카데미 운영 8기 3월~6월
9기 9월~12월
- 순국 105주기 추모식 · 국제 친선 교류회 3월 26일
- 광복 70주년 기념 <안중근의사 특별전> 3월~6월
- 제11기 대학생 안의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7월 중
- 안의사 탄신 136주년 기념식 9월 3일
- 일본 안의사 추모법요 및 한·일 친선 행사 9월 6일
- 제12회 안중근 장학생 선발 및 UCC 공모전 9월 중
- 하얼빈 의거 106주년 기념식 10월 26일
- 제5회 안중근평화음악회 10월
- 국제학술회의(일본) 11월 중
- 안의사 문헌 발간 12월

News Letter

2015

Vol. 40

[COVER STORY]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2010년 새롭게 건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



02	OPENNING	영웅 _ 김수지
04	권두언	광복 70주년, 우리의 나아갈 길은 안중근의사의 사상에서 _ 안응모 이사장
06	기획특집	한양성곽과 남산둘레길 _ 이주화
12	FOCUS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개관
14	파워리포트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_ 이정식
20	ING!!! 위훈선양사업	순국 104주기 추모식, 국제친선교류회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식 제10기 대학생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제1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전 안중근아카데미 제6, 7기 수료 순국 104주기 추모 제12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제11기 안중근 경광·덕원장학생 선발 국제학술대회
28	목역산 칼럼	판시와 남북통일 _ 조동성
30	탐방기1	'안의사 아리랑'과 동양평화론의 현장 _ 기미양
36	탐방기2	미래 양국의 평화 행복 상징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길 _ 오준교
40	문화산책	국제시장과 굳세어라 금순아 _ 양승국
43	건강강좌	인공치아 임플란트의 선택 _ 김영수
44	실무현장 포커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올려 퍼진 나라사랑의 함성 _ 장정자
46	학생 글짓기 대회	산문부문 대상 '세계 평화론의 선구자, 안중근의사' _ 김경모
49	자서전 독후감 대회	중등고교 1학년 대상작 '진정한 영웅의 길' _ 김진세
51	게시판	가톨릭 韓·日 주교단 기념관 방문 외
55	안중근사랑회원 가입신청서	
56	2015 추모·기념사업	

발행일 2015년 1월 통권 40호 | 출판등록번호 제-2074호(95.11.20) | 발행처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 발행인 이사장 안응모 | 편집인 기념관장 조동성 | 편집위원 상임이사 정하철 | 편집담당 사업팀장 장정자, 학예팀장 이주화 | 기획·편집 도서출판 밝은비 | 디자인·인쇄 창작공간 필꽃 | 전화 (02)771-4195, 3789-1016 | 팩스 (02)753-5033

OPENNING



영 요

지는 해는
더 이상 뜨지 못한다
그대의 저무는 황혼은
붉게 물들인 들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리고
다시
평화의 장막을 가져올
새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운명을 좌우한
한 마디 약지,
피눈물의 혈서,
총알 3발,
마지막으로
길이 울려 퍼지는 3번의
‘대한 독립 만세!!!’

하지만
해가 질 때
그림자조차 빼앗긴
떠도는 영혼이여
이제 떠나가시라
참된 평화 누리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며 떠나가시라
평안히.



김수지 _ 이화여자외국어고교 2학년
2014 제12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운문부문 대상작

광복 70주년, 우리의 나아갈 길은 안중근의사의 사상에서



安應模 _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승모회 이사장

올해는 안중근의사 순국 105주기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안의사는 20세기 초, 일제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롭게 되

자 국내에서 계몽운동과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1907년 중국 간도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하던 중 의병장이 되어 두만강 인근 회령과 경흥, 신아산 지역에서 일본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안의사는 최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패퇴한 후 크게 좌절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 크라스키노(카리마울)에서 새로운 동지들을 규합, 단지동맹을 결성, 더욱 강렬한 항일투쟁을 다짐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두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함으로써 대한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으며, 이러한 안의사의 의거는 국내외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안의사가 지역관리 뤼순감옥에서 31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기 직전까지 남겨놓은 자서전(안응칠역사)과 유묵,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법정투쟁과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3·1운동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계속 이어져왔다. 특히 “대저 합치면 살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한 이치이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안의사의 동양평화론은 그 서문을 통해 세계가 분열되고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의사의 고귀한 위국헌신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며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열강의 침략이 물려오던 약육강식의 국제정세를 비판하면서 오늘날 UN과 EU와 같은 군사·경제 공동체와 공용화폐 사용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1910년 3월 26일 사형집행이 앞당겨져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105년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행복을 염원했던 안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인류평화를 향한 위대한 외침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조국 광복 후에도 남북으로 분단된 지 어언 70여 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한·중·일간의 영토분쟁과 북핵문제 등으로 무력대치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의사의 고귀한 위국헌신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며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역사의 자취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만나는 곳

- 한양성곽과 남산둘레길

■ 글/사진 이주화 _ 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팀장

한양성곽
도성기능수행한
세계서 가장 오랫동안

서울 한양성곽(사적 제10호)은 조선 朝鮮의 도읍지인 한성부 漢城府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태조 5년(1396),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의 내사산 內四山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성곽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都城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 514년) 도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양성곽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흥인

문(동대문)·돈의문(서대문)·숭례문(남대문)·숙정문(북대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동소문)·소의문(서소문)·광희문(남소문)·창의문(자하문)이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다.

한양성곽에는 우리 역사 전체가 아로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 온 축성기법과 성곽 구조를 계승하였으며, 조선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처음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후에 보수하고 개축한 모습까지 간직하고 있어 성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한양성곽이 처음 완공된 것은 약 620년 전이다. 태조 5년(1396) 음력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 간, 이

어서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 간, 모두 98일 동안 전국 백성 19만7400여 명을 동원하여 쌓았다. 전체 공사구간(총 5만 9,500척)을 600척씩 97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을 천자문 순서에 따라 이름 붙인 뒤 군현^{郡縣}별로 할당하였다. 태조 때 처음 축성할 당시 평지는 토성으로 산지는 석성으로 쌓았으나, 세종 때 개축하면서 흙으로 쌓은 구간도 석성으로 바꾸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벽 일부가 무너져 숙종 때 대대적으로 보수·개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비하였다. 성을 쌓을 때에는 일부 성들에 공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태조·세종 때에는 구간명·담당 군현명 등을 새겼고 숙종 이후에는 감독관·책임기술자·날짜 등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밝혔다. 600여 년 간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한 한양성곽은 한양에 사는 백성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종로 한가운데 위치한 보신각 종루에 매달린 종을 새벽에는 33번, 저녁에는 28번을 쳐서 성문 여닫는 시각을 알렸다. 새벽에 치는 종을 바라(파루), 저녁에 치는 종을 인경(인정)이라 했는데, 민가의 대문도 이 종소리에 따라 열리고 닫혔으니 성문의 개폐 시각이 한양백성의 생활을 지배한 셈이다. 한양성곽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동시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였다. 왕이든 백성이든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도성 밖에 묻혀야 했으니, 서울 사람들에게 성곽은 삶의 증표와 같았다.

과거를 보거나 장사를 하러, 혹은 유람을 하러 먼 곳에서 상경하는 길손들에게 한양성곽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괴나리봇짐을 메고 몇날 며칠을 걸어서 온 이들이었으니 먼발치에서 남대문과 한양성곽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드디어 한양이구나!’ 싶은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특히나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을 두른 성벽의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성곽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순성놀이’라는 놀이가 생겼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한양성곽은 일차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경계였으나 이 둘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 구실도 하였다. 도성 안에서는 채석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 쌓는 데 필요한 돌은 모두 성 밖에서 조달해야 하였다. 성벽은 비록 백악·낙산·남산(목멱





국보1호 승례문.



N서울타워의 관람객들.



수표교.



국립극장.

산) · 인왕산의 능선 위에 쌓였으나, 그 돌들은 북한산과 아차산 등지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한양성곽은 이렇게 내사산과 외사산을 연결하고,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를 통합하였다.

한양성곽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1899년 성곽 안팎을 연결하는 전차가 개통됨에 따라 먼저 사대문이 제 기능을 잃었고, 1907년 일본 왕세자 방문을 앞두고 길을 넓히기 위해 승례문 좌우 성벽이 철거되었다. 이어 1908년에는 평지의 성벽 대부분이 헐렸다. 성문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소의문은 1914년에 헐렸으며, 돈의문은 1915년에 건축 자재로 매각되었다. 광희문의 문루는 1915년에 붕괴되었고, 혜화문은 1928년에 문루가, 1938년에 성문과 성벽 일부가 헐렸다. 일제는 1925년 남산 조선신궁^{朝鮮神宮}과 흥인지문 옆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을 지을 때에도 주변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돌을 석재로 썼다. 민간

에서도 성벽에 인접하여 집을 지으며 성벽을 훼손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도로 · 주택 · 공공건물 · 학교 등을 지으면서 성벽이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한양성곽의 복원은 1968년 1·21 사태 직후 숙정문 주변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일단 훼손된 문화재를 완벽하게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데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주변 지형과 원 석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양성곽은 현재 전체 구간의 70%, 총 12.8km (2014년 말 기준) 구간이 남아 있거나 복원되었다. 숙정문 · 광희문 · 혜화문을 복원하였지만 광희문과 혜화문은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축성기술 등 무형의 자산을 제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중근의사에 관련된 남산둘레길

승례문에서 남산공원을 지나 장충체육관 뒷길까지 성곽이 이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남산 둘레길이라 말한다. 남산(목멱산, 해발 270m)은 서울의 안산(案山)에 해당하여 조선 초기부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비는 국사당을 이 산에 두었다. 또 정상에는 변방의 변란을 알리는 봉수대를 설치하여 궁궐에서 직접 살필 수 있게 하였다.

현재 남산은 한강 남북을 포괄하는 서울의 행정구역상 중심부에 해당하며 정상 부근에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임을 표시하는 '서울 중심점'이 설치되어 있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일제가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지으면서 주변 성벽을 대부분 파괴했으나 1970년대 이후의 성곽 보존·정비 사업과 1990년대 중반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는 옛 모습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럼 이제, 남산둘레길에 자리 잡은 명소들을 둘러보도록 하자.

[승례문崇禮門] 국보 제1호, 한양성곽의 남대문이자 정문이다. 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 완공하였고, 1448년과 1479년 2차례에 걸쳐 개축하였다. 1907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좌우 성벽이 헐린 뒤에는 문화재로만 남았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으나 2008년 2월 화재로 목조인 2층 문루가 훼손되었다가 2013년 5월 복구되었다. 이때 승례문 좌우 83m 구간에 성벽을 연결하였다.

[남대문시장과 칠패시장] 남대문시장은 1897년 1월에 개장한 한국 최초의 도시 상설시장이다. 조선 초에는 이곳에 상평창(常平倉)이 있었는데, 17세기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宣惠廳) 창고로 바뀌었다. 1894년 조세금납화 조치에 따라 현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자 이 창고를 상인들에게 내 주어 시장으로 삼았다. 남대문 밖에는 칠패(七牌) 시장이 있어 중루(중로4거리), 이현(홍인지문 안)과 더불어 조선후기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혔다. '칠패'라는 명칭은 이곳이 어영청 제7패의 순라길이었던 데에서 비롯됐다.

▶▶ 생각해 보기

남산 회현자락 유구 발굴현장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주변은 1925년 일제가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성곽을 훼손했던 곳이다. 2013년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보존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발굴했는데, 발굴 결과 땅 속에 묻혀 있던 성곽의 기저부와 조선신궁의 배전 터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 유구는 조선시대 축성 기법과 석재(石材)의 변천 과정, 그리고 근대사의 아픔을 알려주는 소중한 유적지가 될 것이다.

남산에 독립운동가 동상이 특히 많은 이유는? 남산의 백범광장 주변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 동상을 비롯하여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성재 이시영 선생 동상 등 항일운동가를 기리는 기념물이 많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신궁이 있던 곳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을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편, 남산 소월로에는 퇴계 이황 선생 동상과 다산 정약용 선생 동상이, 국립극장과 장충단공원 사이에는 이준 열사 동상, 유관순 열사 동상, 사명대사 동상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는 대한제국 말기 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참담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불타는 애국심으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여 자주독립과 동양평화의 길을 밝힌 민족의 영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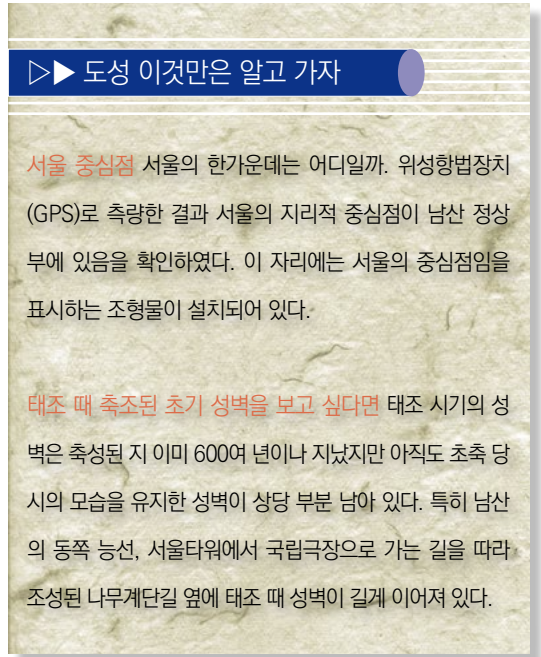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신궁 터에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안중근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남산 회현자락에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0년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새로이 건립됐으며, 전시설에는 안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안중근의사의 단시동맹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묶은 형태로 지어졌으며, 2010년 서울시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1층 전문박물관이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사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잠두봉 포토아일랜드] 남산 서쪽 봉우리는 누에머리를 닮았다 하여 예부터 잠두봉(蠶頭峰)이라 불렸다. 이곳 전망대에 오르면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심의 빌딩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목멩산 봉수대 터] 기념물 제13호, 목멩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국팔도에서 올리는 봉수(烽燧)의 종착점이었다. 봉수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정세를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평시에는 1개의 봉수를 올렸으며, 변란이 생기면 위급한 정도에 따라 2개부터 5개까지 올렸다. 목멩산 봉수대는 세종 5년(1423)에 설치되어 1895년까지 500여 년 간 존속하였다. 현재의 봉수대는 1993년에 추정 복원한 것이다.

[남산 팔각정과 국사당 터] 남산 팔각정 자리는 조선시대 국사당(國師堂)이 있던 자리이다. 조선 태조는 남산을 ‘목



▶▶ 도성 이것만은 알고 가자

서울 중심점 서울의 한가운데는 어디일까. 위성항법장치(GPS)로 측량한 결과 서울의 지리적 중심점이 남산 정상 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의 중심점임을 표시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태조 때 축조된 초기 성벽을 보고 싶다면 태조 시기의 성벽은 축성된 지 이미 600여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초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성벽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특히 남산의 동쪽 능선, 서울타워에서 국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 조성된 나무계단길 옆에 태조 때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덕대왕'으로 삼고 이 산에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국가 제사만 지낼 수 있게 하였다. 1925년 일제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인왕산 기슭에 옮겨졌다. 제1공화국 때에 원 국사당 자리에 탐골공원 팔각정과 같은 모양의 정자를 지었는데, 4·19 혁명 이후 팔각정이라 이름을 붙였다.

[N서울타워] 남산 정상에 우뚝 솟은 전망탑으로 해발 480m 높이에서 360도 회전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이다. 1969년 수도권에 TV와 라디오 전파를 송출하는 종합 전파탑으로 세워졌다가 1980년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이후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2005년 복합문화공간인 'N서울타워'로 재탄생하였다. 전망대 2층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옥을 이

서울의 중심점

The Geographical Center of Seoul

서울은 조선 태조 3년(1394) 한양 천도로 도읍지가 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져 한양 도성 중심에서 한강의 남쪽을 아우르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지리적 중심점은 남산의 정상인 현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이 표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결정을 위한 측량의 출발점인 대한민국 최초의 경위도 원장이었던 곳에 설치된 것으로, 국가기준점(서울25삼각점)과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 측지와 지적 측량에 쓰인다.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랑동 신5-6
좌표 : 위도 37° 33' 05.6" 경도 126° 59' 19.6" 높이 267m

- ※ 1. 이 표지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 2. 관리자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서울특별시청

서울 중심점 안내문.



서울 중심점.



목목산 봉수대.



남산 팔각정.



남산골 한옥마을.

전, 중건하여 1998년에 개장한 도시공원. 일제강점기에 헌병대 사령부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부지를 1989년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원으로 단장하였다. 공원은 자연형으로 조성했고, 필동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관훈동 민씨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등 조선 후기와 개화기에 건축된 한옥들을 모아 두었다. 한옥 지구 남쪽에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국립극장] 1973년 장충동에 건립된 국립 공연·예술 종합극장이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도중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한 장소이기도 하다. 해오름극장(대극장), 달오름극장(소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원형 야외무대) 등이 있다.

[수표교] 유형문화재 제18호, 조선 세종 2년(1420)에 세

운 다리로 처음 이름은 마전교였다. 세종 23년(1441) 그 옆에 수심을 재는 수표(水標)를 설치한 뒤로 수표교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다. 영조 36년(1760) 개천을 준설할 때 교각(橋脚)에 '경진지평(庚辰地平)' 낙자를 새기고 향후강바닥을 준설할 때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경진지평'이란 경진년에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정비하였다는 뜻이다. 수표교는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할 때 장충단공원으로 이전되었다.

[장충단비]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은 1900년 을미사변(1895) 때 순국한 장병들을 제사지내기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다가 이듬해 개항 이후 순국한 사람들 모두를 제향하는 국립현충시설로 격상되었다. 일제는 1907년 장충단 제향(祭享)을 폐지하고 3·1 운동 이후에는 그 일대를 공원으로 개조하였다. 1932년에는 장충단 맞은편, 지금의 신라호텔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博文寺)가 건립되었다.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 중국정부에 감사서한 전달 및 방문 인사

감사 서한문 전달

2014.1.19. 중국정부에서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새로 마련해준데 대해 2014.1.22.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안응모 이사장과 백성학 부이사장, 조동성 안중근의사기념관장 공동명의로 중국정부 시진핑 주석에게 정중히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에 2014.4.24.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를 통해 감사의 뜻과 함께 “귀회와 기관이 안중근의사의 정신과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한·중 두 나라 국민이 대대로 우호적이길 염원하며, 귀회와 기관이 한·중 국민의 우의증진과 인류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낸 답신.



중국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방문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2014.6.5.~6.8.(4일간) 이승윤 고문(전 경제부총리), 안응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순흥안씨 대종회 안영홍 회장, 황해도민회 김한국 회장 등 30여 명이 중국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뤄순감옥 등 안의사의 항일운동 사적지를 방문하여 중국정부 및 기념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에 앞서 2014.5.8.~5.10.(3일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을 비롯, 안중근의사 숭모회/기념관의 안응모 이사장, 조동성 관장, 유해발굴위원회 유명환 의원(전 외교부장관), 김우전 광복회 고문(전 광복회장), 독립기념관 김능진 관장,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미국거주) 등 20여 명이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 중국 정부관계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 글/사진 이정식 _ 제6기 안중근홍보대사, 서울문화사 사장

한·중 정상회담 전 이태진 교수 청와대 관계자에게 조언

2014년 1월 19일 중국 하얼빈 역에 문을 연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새로운 한·중 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 때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표지석이 아닌 기념관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정상회담의 결과로 중국이 우리에게 꽤 큰 선물을 한 셈이다. 그런데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들어서기까지는 이곳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오랜 노력이 그 배경에 있었다. 또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시의적절한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념관 건립 후 밝혀졌다.

이태진 교수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2013년 5월초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났다. 주 수석은 이 교수의 서울대 사학과 4년 후배. 주 수석을 만난 목적은 연해주의 독립운동 유적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주 수석이 이 교수에게, “다음 달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중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중국 국가문서관의 문서를 외국인들도 원활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둘째 하얼빈 역의 안의사 의거 현장에 글자판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04년 하얼빈 역 플랫폼에 의거 현장 표지 새겨

하얼빈 역 안의사 의거 현장에는 당초 아무런 표지도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 하얼빈에 사는 동포들의 노력으로 플랫폼 바닥에 안의사가 총을 쏜 지점엔 세모 표지^{標識}를, 약 6.8m 정



중국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1903년의 하얼빈 역사를 담은 사진.

도 거리를 두고 이토가 서 있던 곳에는 네모 표지를 해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러한 표지가 바닥에 있는가 하는 설명은 없었다. 그러니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표지일 뿐이었다. 그래서 동포들은 2009년부터 플랫폼 표지 옆에 의거를 설명하는 글자판을 넣을 수 있게 중국 정부에 청원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은 당시 동북공정과 일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이러한 요청을 외면해 왔다. 그러던 중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두 가지 요청 중 중국 국가문서관 문제에 대해 중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의거 현장 기념 표지석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다(이태진 교수는 주 수석에게 ‘글자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동포들이 글자판 설치를 추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플랫폼 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기념 표지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진 교수는 중국의 반응을 보며 처음엔 저격 현장에 글자판을 새겨 넣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했지, 기념

관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는 하얼빈 역의 귀빈대기실을 개조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만들었으며 그 내부에서 큰 유리창을 통해 세모와 네모 표지판이 붙어있는 저격 현장을 잘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념관이 들어서기까지 하얼빈시에 근무하는 조선족 간부 서학동(徐鶴東) 부국장의 역할과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서학동 부국장과 100여 년 전의 하얼빈 역

내가 이 교수로부터 서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2014년 4월 1일이었다. 그 전에는 서학동이라는 인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서씨에 대해 궁금해 하던 중 이해 4월 24일 저녁 하얼빈의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이날은 하얼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다녀 온 날이기도 했다. 나는 제6기 안중근아카데미 ‘중국 사적지 답사팀’ 일원으로 하얼빈시를 방문 중이었다. 서씨는 답사팀이 저녁을 마칠 무렵 식당에 들어섰다. 보통 체격에 조금 큰 키였고 머리는 약간 벗겨졌으며 동그스름한 얼굴에 콧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었다. 나는 서씨가 그 식당에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몰랐



서학동 하얼빈시 부국장.

다. 서씨는 이혜균 차장(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소개가 있는 후 테이블 가운데 서서 인사말을 했다. 서씨의 공식직함은 하얼빈시 문화신문출판국 부국장이었다(이하 서 부국장). 나는 서 부국장이 인사말을 할 때 카메라와 필기도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서 부국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나는 먼저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외관이 100여 년 전 최초의 하얼빈 역사 모습과 똑같았는데 매우 놀랐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혹시 서 부국장이 아니신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나는 하얼빈 방문 전부터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외관 사진을 보면서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식당에 오기 불과 두어 시간 전 방문했던 성 소피아 성당에서 풀 수 있었다. 성 소피아 성당은 1907년, 당시 러시아 조차지였던 하얼빈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위해 건립된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당이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성 소피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안내 책자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소개돼 있다. 건축양식이 성당과 같아서일 것이다. 이 건물은 지금 하얼빈 건축박물관으로 쓰인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지난 100여 년 간 하얼빈 건축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많은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대부분 흑백사진이다. 함께 갔던 수

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가 이 사진들 중에 옛 하얼빈 역 사진이 있다고 했다.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많이 보아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하얼빈 역에 만들어진 안중근의사기념관 외양과 닮은 건축물, 그것은 바로 건립 초기의 하얼빈 역이었다.

나는 이 초기 하얼빈 역 형태를 안중근의사기념관 외관으로 차용한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아이디어가 매우 풍부하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던 중 서 부국장을 처음 봤을 때 매우 명석하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서 부국장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하얼빈 역은 그동안 세 차례나 고쳐지어 과거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하얼빈 의거가 100여 년 전 있었던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시의 역 외관을 따서 디자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옛 역사 모형 위의 시계를 의거를 결행한 오전 9시 30분에 맞춰놓는 문제로 다소 논란도 있었다고 했다. 시계를 고정시켜 놓을 경우 승객들이 시각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처음에는 역 측에서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잘 설득되어 시계를 의거 시간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났을 때는 표지석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기념관을 만들어주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처음엔 어떤 지시가 왔는가? 기념관으로 지어지게 된 경위를 말해줄 수 있는가?”

서 부국장은 “처음부터 기념관으로 지으라는 지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로부터 처음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그런데 기념관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다고 했다. 최초 지시가 ‘사건발생



수원대 박환 교수로부터 기념관 전시물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팀.

지기념관'으로 지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친 뒤 결국 '안중근의사기념관'으로 현판을 달게 되었다며, 개관 전까지 있었던 숨은 뒷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기념관 건립, 개관 이틀 전 한국정부에 알려

서 부국장은 “개관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는 중국 외교부의 주문도 있었지만, 만약 기념관을 만든다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으면 공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필자 생각엔 일본과의 외교 마찰 등을 떠올렸는데, 이날 서 부국장은 일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10월 한국 방문 시 안중근의사기념관 조동성 관장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 했다고 한다. 친형이 “하얼빈 역에 안의사 동상을 세운다는데 맞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만찬가지였다고 했다. 당시 하얼빈 동포들 사이에는 안의사 동상이 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한

국에까지 전해졌었다.

서 부국장은 “하얼빈 역에 기념관을 만들어 온 사실을 한국 외교부에 개관 이틀 전인 2014년 1월 17일 통보했고, 기념관 간판은 개관 당일인 19일 오전 9시 30분에 걸었을 만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며 그간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소개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입구 쪽에 ‘國家安危 勞心焦思’, ‘爲國獻身 軍人本分’ 등 안의사의 주요 육필이 걸려 있고, 내부가 시작되는 천장에는 안의사 생애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 볼 수 있게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놓았다. 그 다음 안의사 흉상을 시작으로 가정·교육·신앙, 애국운동과 구국교육 실천, 의병투쟁과 단지동맹, 하얼빈에서의 열하루 등을 벽면에 사진 등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대형 유리창을 통해 플랫폼의 의거 현장을 비스듬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유리창으로 보면 ‘안중근격폐이등방문사건발생지(격폐는 격살擊殺 즉, ‘쳐서 죽인다’는 한자어)라는 위치 표시가 플랫폼 위에 잘 보이도록 걸려 있고, 그 아래 ‘세모’와 ‘네

모' 표지를 볼 수 있다.

의거 현장에서 눈을 돌려 다시 기념관 내부를 보면, 유리창 쪽으로 중국의 유명 화가 권오송(權伍松)이 그린 '안중근격살이등박문'이라는 제목의 대형 의병투쟁기록화가 걸려있고, 그 옆에 이토의 검시 기록 등이 있다. 이어 뤼순감옥에서의 안의사의 모습과 최후의 유언, 동양평화론 등이 설명되어 있다. 문 쪽으로 주은래, 손문, 원세개, 장개석, 양계초, 장경국, 등영초 등 과거 중국 지도자들이 안의사 의거에 대해 칭송한 글들이 작은 액자에 넣어 전시돼 있다. 그런데 기념관은 바닥이 이중 구조여서 입구 쪽은 낮고 유리창 쪽은 조금 높았다. 여섯 개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다. 나는 처음에 기존 건물을 기념관으로 급하게 꾸미느라 원래의 바닥 구조를 고치지 못했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 부국장의 설명은 "의거 현장이 잘 보이도록 창 쪽 바닥을 일부러 높였다"는 것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철로와 기

차를 볼 수 있으므로 100여 년 전 기억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

서 부국장은 유리창에서 거리가 있어 플랫폼 바닥의 세모와 네모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표지를 새로 붙일 것이라고 했다. 기념관 내부에 설치된 흉상이 안의사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얼빈 역을 새로 지을 계획이며, 새 역사가 들어서면 안중근의사기념관도 한층 잘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부국장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던 전 흑룡강신문사 사진기자이자 중국어판 『대한영웅 안중근』을 펴낸 이대무(李大武)(현 흑룡강성 예술연구소 연구원) 씨를 지목하며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대무씨와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기념관에서 바라 본 안중근의사 의거 현장. '안의사가 이토를 격파한 곳'이라는 중국어 표지가 보이고, 플랫폼 바닥에 '세모(저격 위치)'와 '네모(이토가 총탄을 맞은 곳)' 표지판이 있다.



과거 러시아가 조성했다는 하얼빈 중앙대가에는 바이올린 등 악기를 켜는 형상의 동상이 있다. 인구 1064만 명이 거주하는 하얼빈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다.

현지 동포들의 오랜 노력과 요청이 디딤돌 되어

서 부국장은 “이곳 흑룡강성 조선족 동포들은 1992년 안의사 오페라를 만들기도 하는 등 그간 안의사 선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이렇듯 짧은 기간에 기념관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관 개관 이후 약 4개월 동안 5만여 명이 관람했으며, 이 가운데 한족이 60%, 한국인 30%, 기타 외국인 10%였다고 밝혔다. 그가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비록 20분 남짓 됐을까. 답사팀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아쉬운 작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에 대한 이력을 간략하게나마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서 부국장은 1960년 5월 하얼빈에서 출생했으며 흑룡강성 물자직공대학과 위당교 본과를 졸업하고 94년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관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1995년 동북 3성 4만 명의 조선족이 참여한 하얼빈시 제1회 조선족 민족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이 행사를 3년마다 열리는 정기 행사로 만들었으며, 3회 때부터는 전국 행사로 확대했다. 2002년 중국에서 처음 열

린 단일 소수민족 가요 경연인 제1회 조선가요콩쿠르를 개최했고, 2005년에는 하얼빈시 문화계통에서는 40년 만에 전국선진사업일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흑룡강성 제8기, 제9기 정치협상회의 위원을 역임했고, 문화예술 부문의 능력 있는 간부로 중국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인물이다. 특히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 개관 이후 기념관에 관한 한 정부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어 국내외 언론사들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때란 것도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온 결과로 얻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낀다. 만약 하얼빈 역에 의거 현장 포지와 글자판을 넣기 위한 동포들의 사전 노력이 없었다면 이태진 교수가 그러한 조언을 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의 잇단 역사 왜곡 망언으로 한·중 양국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의적절한 조언을 한 이태진 교수와 현지에서 중요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한 서학동 부국장, 그리고 오랜 세월 중국에서 안중근의사 선양을 위해 노력한 우리 동포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순국 104주기 추모식 및 안의사 평화사상 선양 국제친선교류회

안중근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식이 2014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 국무총리 정원식 고문, 안응모 송모회 이사장, 조동성 기념관장, 안홍순 광복회 부회장,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현창훈 안중근 잠수함 함장, 김우진·윤경빈 전 광복회장, 안의사 증손자 안도용·외손녀 황은주 여사(미국 거주)를 비롯한 유가족·친인척 30명, 그리고 송모회 회원, 내빈,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응모 이사장은 추모식사에서 “아베 총리 등의 망언으로 인해 한·일관계 갈등 증폭과 북한 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안의사의 꿈과 염원이 담긴 평화가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며 “오늘 순국 104주기를 맞아 안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안숙선(좌측에서 세 번째) 명창과 그의 제자들.



안의사 증손자 안도용(사진 우측) 씨와 외손녀 황은주 씨가 헌화하고 있다.

가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서는 제12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시상식과 팼페라 가수 듀오아임의 추모공연이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내 지도층 인사 30여 명이 추모화환을 근정하여 안의사를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렸다.

한편, 추모식과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평화사상 선양 국제친선교류회’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모회 안응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안의사 유가족으로 증손자 안도용과 외손녀 황은주 씨, 그리고 증손녀 안기수, 외증손 권혁우 씨 등과 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는 안의사 여동생(안성녀)의 외손 김영금 씨 등이 참석했다. 특히 30여 년 간 안의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매년 추념식에 참석해 오다가 지난 2010년 작고한 가노다쿠미 변호사의 아들 가노 겐(鹿野 元) 변호사,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이사장 일행 등 일본에서도 2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연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안숙선 명창(송모회 자문위원)이 제자들과 함께 안중근·진도아리랑 등을 열창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식 모습.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식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식이 201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안홍순 광복회 부회장,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 안의사 유족, 애국단체 대표,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동성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의 약전봉독, 송모회 이사장의 기념식사, 국가보훈처 차장·광복회 부회장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제1회 안중근 알리기 UCC공모 수상자 시상식 및 테너 양광진, 소프라노 손은정 씨의 ‘하얼빈 의거는 빛났네’ 등의 기념공연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안응모 이사장은 기념식사에서 “안의사의 생애는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여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써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하여 국내외적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의사 탄신 135주년 기념 일본국 추모행사 및 친선 교류회



일본 대림사에서 열린 안의사 탄신 135주년 추모법요.

안중근의사숭모회 방문단은 안의사 탄신 135주년을 맞아 추모법요 및 한일친선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

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송모회 안용석 상임이사 및 임원, 황해도민회 민세홍 부회장, 오정소 안중근홍보대사(전 국가보훈처 장관), 안의사 유족, 제천 복천사 양승문 주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9월 13일 일본 미야기현 대림사 및 사담회에서 주최하는 추모법요와 교류회에 참석한 뒤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지역 등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및 역사문화를 탐방했다.

▶ 관련소식 - 한·일 민간교류단체가 부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 씨앗’ 36쪽

제10기 대학생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단지동맹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대학생 탐방단.

‘대학생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사업이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행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 10기 탐방단(단장 윤현주 본회 이사, 변호사) 30여 명은 2014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및 중국 훈춘, 뤼순 지역 등을 찾아 국권회복을 향한 안의사와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항일투쟁 현장들을 체험하였다.

승모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지도교수, 언론사가 함께 참여, 탐방 현장에서 얻은 체험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평화의 소중함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켜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4년도 사업에는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특별 후원하였으며, (주)네파에서 탐방단원용 의복과 모자 등을 후원했다.

한편 승모회는 탐방사업 종료 후 학생들의 기행문을 엮어 책자 『안중근의사 국외사적지 탐방』을 발간했으며, 학생들은 ‘국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커뮤니티를 결성해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 관련소식 - ‘안의사 아리랑과 동화평화론의 현장’ 30쪽



KBS 홀에서 열린 안중근평화음악회.

의거 105주년 기념 ‘안중근평화음악회’

안중근의사승모회/기념관이 하얼빈 의거 105주년을 맞아 제4회 ‘안중근평화음악회’를 2014년 10월 10일 KBS홀에서 개최했다.

의거의 참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안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국가보훈처, 동아방송예술대학, MI Art & Culture가 후원했으며, 13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구촌에 전파하는 안의사 사상과 업적 ‘제1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전’



안응모 송모회 이사장이 UCC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장학사업 10주년을 맞아 ‘2014년 제1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안의사를 홍보하고자 기획됐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안의사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 왜곡으로 인한 국내외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토픽코리아가 일부 후원한 공모전에는 9팀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이영옥 심사위원장(본회 이사, 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참가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고 평했다.

심사기준은 ‘주제’, ‘주제 전달의 정확성’, ‘기획의 참신성’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전 세계가 대상인 만큼 영문 자막 또는 나레이션을 넣은 팀에게 가산점이 부여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우등지 학생이 수상했다(수상자 표 참조). 최우수작 ‘안중근의사의 생애, 그리고 기록’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음악과 영상의 조화가 훌륭

하고 도입부부터 안의사 일대기를 참신한 기획력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점이 매우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등지 학생은 “안의사 발자취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존경과 애도하는 마음도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수여와 함께 상금이 지급됐다(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 시상은 안의사 의거 105주년 기념식장에서 가졌으며, 행사 전 수상작들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해 내빈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스크린에 조마리아 여사가 안의사 순국 직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 스크린에 떠오르는 부분에선 많은 사람들이 숨 죽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제작한 UCC 영상은 현재 인터넷에서 세계인들에게 안의사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있다. 올해로 첫걸음을 뗀 이번 공모전이 더욱 발전하여 지구촌 누구나 안중근의사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 UCC공모전 수상작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제목 검색 후 시청 가능.

수상	성명	제목
최우수상	우등지(한국방송대 4년)	안중근의사의 생애, 그리고 기록
우수상	이건행(홍익대 1년)	안중근(The judgement of Harbin)
장려상	고승범 · 최윤수(백석대 3년)	도마 안중근, 죽는 순간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다
	김민지(중앙대 2년)	안중근과 사랑
	이재웅(백석대 3년) 인유라(가천대 4년)	2월 14일의 의미

안중근아카데미 제6, 7기 수료



제6기 수강생.



제7기 수강생 대표.

제6기 수료생 명단

김기식 (주)기룡 대표이사 / 김승기 전 국방대학교 교수 / 김형갑 김형갑세무회계사사무소 소장 / 노수문 노수테크 (주) 대표이사 / 박광원 라파엘의 집 사무국장 / 박덕헌 (주)지엔에스해운 대표이사 / 박창재 (주)에픽소프트 대표이사 / 박항숙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 주무관 / 서대희 전 사업가(현 명예회장) / 오정소 전 국가보훈처 장관 / 오준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규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이정식 서울문화사 대표 / 이정임 한화손해보험 컨설턴트 / 임용경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전탁교 용마건설 이사장 / 최재승 전 국회의원(14·15·16대) / 한기엽 동릉물산 대표이사(전 대구지방보훈청장) / 홍승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수료 2014. 6. 17

제7기 수료생 명단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 박창재 (주)에픽소프트 대표이사 / 백점숙 (주)거한 이사 / 변중석 한국감사협회 회장 / 안승학 (주)지엔에스해운 과장 / 이용훈 (주)퀸즈빌 대표 / 이현희 특허법인 세원 대리 /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사무소 공인회계사 / 정은선 서울장평초등학교 교사 / 최석진 서예연구가 / 황인곤 (주)롯데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 김지형 안중근의사승모회

수료 2014. 12. 16

제1차 교직원 직무연수 아카데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교직원 직무연수 안중근아카데미'가 2014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실시됐다.

교직원들의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시키고 학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이 사업에는 초·중·고 교원 19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유명 교수진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독립운동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교직원 직무연수 아카데미를 1년에 2차례(동계·하계) 실시할 예정이며, 최고의 강사들을 초빙해 교직원들이 안의사의 생애 및 사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1차 교직원 직무연수 아카데미 현장.

순국 104주기 추모 제12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 산문부문 △대상 김경모(서울 양천고) △최우수상 류연웅(고양예고) 원자경(인천 상인천여중) 김새봄(서울 천호초교) △우수상 김지수(대일외고) 박철진(서울 환일중) 권윤서(서울 신도림초교) △장려상 박강혁(성남 송림고) 고희민(서울 장훈고) 성예빈(서울 고척중) 장민서(서울 남서울중) 박호원(남양주 심석초교) 김소현(서울 응봉초교)

■ 운문부문 △대상 김수지(서울 이화외고) △최우수상 박주희(안양예고) 김다현(안동 길주중) 정준호(서울 안평초교) △우수상 박권영(성남 삼평고) 이명찬(구미 오상중) 이다연(제주 신제주초교) △장려상 이덕기(안산 송호고) 전예진(파주 교하고) 조승훈(부산 동아중) 천송(서울 덕원중) 김선우(서울 금호초교) 전효경(춘천 부안초교)

■ 공모 기간 : 2014년 1월 27일~3월 7일

■ 응모 인원 : 401명

안의사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독후감 대회

수상자 명단

■ 광문고 1학년 _ △대상 장민정 △최우수상 유연원 안현주 △우수상 유재상 이신행 이해주 김현경 이지원 △장려상 조영석 외 9명 / 2학년 _ △대상 온도원 △최우수상 이일규 송하은 △우수상 권승민 김예원 공형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글짓기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선 한지훈 이현아 △장려상 박소정 외 9명 ■ 서일고 2학년 _ △대상 김민수 △최우수상 한치영 김진호 △우수상 이상화 김현민 이상구 △장려상 이재웅 외 4명 ■ 장훈고 1학년 _ △대상 강석찬 △최우수상 서승한 박성권 △우수상 오준석 김범진 정해환 △장려상 김동현 외 4명 ■ 서초고 1, 2학년 _ △대상 김예린 △최우수상 이재용 김서형 △우수상 오예지 이시현 윤상은 △장려상 최혜리 외 4명 ■ 운양중 1학년 △최우수상 오가영 한수연 △우수상 설혜민 양현정 이승현 △장려상 박경준 외 5명 ■ 중산고 2학년 _ △대상 고영우 △최우수상 민태홍 이정수 △우수상 윤태식 윤해근 이휘 △장려상 김형주 외 4명 ■ 성신여고 1학년 △최우수상 변정은 △우수상 지예린 홍숙현 권진아 △장려상 공윤수 외 7명 ■ 중동고 1학년 _ △대상 김진세 △최우수상 예준표 신인재 △우수상 이재원 정지호 전승환 △장려상 강성윤 외 4명 / 2학년 _ △대상 김세훈 △최우수상 김정욱 윤재훈 △우수상 진형준 한창환 김환주 △장려상 지우영 외 4명 ■ 고척초교 5학년 _ △대상 서은영 △금상 권세아 △은상 심서현 최나래 이명은 △동상 성채연 김다운 최지민 정유진 △장려상 문예영 외 11명

■ 대회 기간 : 3월 ~ 10월

제11기 안중근 경광 · 덕원장학생 선발



장학생들과 함께 한 안응모 이사장(사진 우측 세 번째)과 이영옥 위원장(두 번째).

안중근의사승모회는 2014년 12월 11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14 정기이사회에서 안중근 경광 · 덕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중근장학생 선발위원회(위원장 ·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심사(2014.11.10.) 결과 경광장학생으로 는 김지수(성신여대 2년), 문찬웅(공주대 2년), 덕원장학생으로는 양보람(홍익대 3년), 이나희(중앙대 3년) 학생이 선발됐으며, 이들 장학생에게는 1인 2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승모회는 지난 2003년부터 뚜렷한 국가관과 우수한 학업성적을 겸비한 대학교 재학생 3~5명을 선발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4년까지 40명의 학생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안중근장학사업은 교육자 출신인 故 이종락 선생(경광장학금), 공직자 출신인 故 안승우 선생(덕원장학금)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기부자의 이름과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기금 명칭에 기부자 이름을 넣어 운영해 오고 있다.

의거 10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사승모회/기념관은 하얼빈 의거 105주년을 맞아 의거에 관한 한 · 중 · 일 삼국의 역사인식에 관한 실태 및 차이를 학술적 접근으로 밝히기 위해 '의거 10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2014년 10월 27일 개최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한 · 중 · 일 학자 및 전문가 10여 명이 '안중근 의거의 기억과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국경넘기'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5시간여 동안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학자 및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 사회 : 김호일(중앙대 명예교수)

■ 경과보고 : 히라다 아츠시(龍谷大 명예교수), 시게모토 나오토시(龍谷大 안중근동양평화연구소 사무국장, 龍谷大 교수)

■ 발표 _ 손염홍(건국대 국제학부 교수), 정혜경(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키노 에이지(일본 龍谷大 안중근동양평화연구소 연구원, 법정대 교수), 다나카 히로시(龍谷大 안중근동양평화연구소 연구원, 一橋大 명예교수)

■ 토론 _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나가타 미츠노부(龍谷大 안중근동양평화연구소 연구협력자), 이수임(龍谷大 안중근동양평화연구소 대표, 龍谷大 교수), 류영렬(송실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최덕수(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테마강연 _ 도노히라 요시히코(淨土真宗 本願寺派 一乗寺 주지, 空知민중사강좌 대표, 강제연행 · 강제노동희생자를 생각하는北海道포럼 공동대표)

‘인문학 K팝페라 콘서트’ 안의사 평화사상과 동양의 감성 담은 노래시로 교감



듀오아임 공연 모습.

안중근의사기념관은 부부 팝페라 그룹 듀오아임(Duoaim)과 공동으로 ‘인문학 K팝페라 콘서트’ 시리즈를 기획해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청소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안의사 평화사상과 한국적 가치를 교감하는 행사를 가졌다.

첫 공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리-윤동주 서시’를 시작으로, 마지막 공연 ‘한 알의 사과 속에는-구상’까지 매회 화려한 무

대영상과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K팝페라 콘서트는 매회 만석을 기록하며 관객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한 감동과 함께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층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유익한 공연이 되었다. 듀오아임은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아티스트 주세페 김과 구미꼬 김이 결성한 크로스오버-팝페라 그룹으로서 지난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안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 ‘아들아 아들아’를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한여름 밤의 영화여행’ 남산자락 산책과 영화관람을 동시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양시키고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문화 콘텐츠 사업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한여름 밤의 영화여행’이 6월부터 8월 중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통해 기념관을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기념관 사업 및 행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영작은 <25시>, <한반도>, <간장선생>, <박물관은 살아있다2>, <집으로>, <자전거를 탄 소년> 등 6개 작품이었으며, 이에 앞서 2013년에도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2009로스트메모리즈>, <한말풍운아 민충정공>, <백자의 사람>, <의사 안중근>, <상록수>를 상영한 바 있다.

관시^{關係}와 남북통일

■ 글 조동성 _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서울대 명예교수 · 중국 장강상학원 교수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 CKGSB) 전임교수가 돼 중국에 생활터전을 마련한지 6개월이 지났다. 이 대학에서 중국 교수, 중국 학생들과 지내면서 책에서 읽지 못하고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중국 사회와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배우고 있다.

중국의 TV는 지방정부 단위로 방송국이 있어서 주요 채널만 30개가 넘는다. TV드라마도 하루에 수십 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내용은 역사물이 다수다. 어느 날 저녁에는 삼국지 드라마를 같은 시간대에 세 채널에서 방영하는 경우도 봤다. 신기하게도 감독과 배우는 다르지만 각 채널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조조, 제갈량, 관우, 장비 등에 대한 인물 묘사는 거의 비슷하다. 유비는 온후인자한 지도자, 제갈량은 지혜로운 전략가, 관우는 충절을 지키는 무장으로 등장한다. 한번 형성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인들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어 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수장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100년 후 TV드라마에 진시황, 마오쩌둥과 함께 역사적 지도자로 등장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후세에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비쳐지길 원할까? 필자 생각으론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만들고 중국인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종구위명^{中國夢}'을 실현시킨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할 듯하다. 동시에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시^{關係}의 핵심 가치인 '이^義', 즉 의리를 지킨 인물로 역사에 남고 싶어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우의를 유지해 왔다. 일제 패망 이후 국공합작이 무너지고 내전이 시작되자 국민당에 비해 무기와 인원이 열세였던 공산당 마오쩌둥 주석은 만주에 있는 공업시설을 차지하기 위해 1946년 북한 김일성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김일성은 상송세를 타고 있던 국민당의 보복을 각오하면서 일제로부터 압수한 소총 10만 정을 공산당에 제공하고 만주 조선족을 인민해방군으로 참전시켰다. 마오쩌둥은 권력을 장악한 후 김일성을 평생 친구

로 예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과 북한의 돈독한 관계는 김정일에게로 이어졌고, 김정일은 미국과 일본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의리를 지켰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과 북한의 의리 관계를 이어받은 시진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판시라는 중국의 문화적 틀로 분석해 보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해서 판시로 묶여 있는 북한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100년 후 자신이 중국 TV드라마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진핑으로서 북한과의 판시를 스스로 깨는 행위는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역사상 가장 긴밀한 한중관계를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판시는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 알리지 않은 채 핵실험을 하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을 여러 척 나포했다. 이런 행위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김정일이었다면 자주국가로서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사전 협의나 사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면서 김일성 이래 중국과 유지해 온 판시를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다.

중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판시 이탈은 시진핑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60년도 더 된 중국과 북한의 판시를 한두 가지 사건으로 무효화 할 수는 없겠으나, 판시가 만들기는 어려워도 깨지기는 쉬운 '살얼음 밟기'라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김정은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 실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중국과 북한의 판시에 입혔다.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전제 하에, 중국과 북한의 판시가 깨진 상황에서 남북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리라고 본다. 10년, 아니 5년 안에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과 구 소련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 경험을 우리 것으로 삼아 남북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때가 왔다.

※ 본 칼럼은 한국일보가 연재하고 있는 '조동성 칼럼'으로, 2014년 12월 1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안의사 아리랑’과 동양평화론의 현장



■ 글 김미양 _ 아리랑학회 이사

매년 해외 ‘아리랑루트 확정’을 위한 한민족 이주사 현장 답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안중근의 사승모회 주관으로 ‘제10기 안중근의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 지도위원으로 참가하여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러시아와 중국 동북삼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왔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조·중·러 국경지대인 연해주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안의사의 행적을 따랐다. 이 중에 핵심은 러시아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크라스키노 중국은 훈춘, 연길, 하얼빈, 대련(뤼순)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집단거주지 신한촌과 우수리스크 최재형 정착지, 단지동맹 지역인 크라스키노, 그리고 안의사 의거 현장인 중국 하얼빈역, 순국 장소인 뤼순감옥은 숙연한 마음으로 답사를 했다. 모두 세계사 변혁기라는 맥락에서 수난사의 정점이고 최후를 마친 곳이라는 점에서 추모와 의병정신 계승이란 의무감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이주 150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 뜻깊었는데, 지난 6월 18일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의 초청으로 고려인 150명이 고국 방문을 함께 하여 러시아 150년 이주사를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8월 15일에는 비로비잔지에서 광복절 기념공연을 국내 아리랑커뮤니티를 초청하여 고려인과 남북이 모여서 '아리랑'을 주제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미국 이주 100년 기념을 아리랑으로 했듯이, 올해에도 러시아 이주 150년 기념도 아리랑으로 개최되는 아리랑의 역사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임을 절감했다.

신한촌은 1863년 연해주에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형성됐으며,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서 대일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1999년 한민족연구소가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이곳을 기리기 위해 '신한촌 기념비'를 세웠다. 사진은 신한촌 기념비를 찾은 제10기 안중근의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



연해주에서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을 고리로 안의사와 13도 의군의 유인석 대장의 의병 활동을 확인하는 곳이다. 이곳을 인천에서 두 시간 반 만에 도착하여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분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송구스럽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전자는 민족 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풍찬노숙을 각오하고 백두산을 넘어간 경로가 아득하고 처참한 생각이 들어서고, 후자는 님들의 희생으로 만든 나라의 후손들이 단숨에 건너 백 년 역사를 단 며칠 만에 답사할 수 있는 세상임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연해주는 해삼위, 노령, 블라디보스토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듯이 이주의 루트가 다양했다. 공항에서 버스로 1시간 이동으로 다다른 신한촌(유적비)은 1863년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형성되어 많은 후손을 키워낸 곳이지만 일제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처참한 박해로 목숨을 묻은 곳이다. 그리고 드디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그 이름 ‘신한촌’으로 역사 속에 각인시켜 유적비를 남긴 곳이다.

그나마 이 유적비조차도 1999년에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세운 것이다. 비문에 새겨 있듯 13도 의군 창설, 1919년 망명정부(대한국민의회) 수립으로 대일항쟁의 의지를 불태운 곳이다. 지난해도 들렀던 곳이지만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의 중요한 거점으로 항일역사가 응축된 역사현장인 것이다.

‘독수리전망대’에서 바라본 역사적 기억은, 조국에서 들어오는 이들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인들이 약속 지점으로 삼은 뜻 깊은 곳이다. 물론 이 ‘약속’은 오늘 같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길게는 계절, 짧게는 상순·하순 정도였으니 약속 자체가 곧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이곳은 고려인들에게는 눈물과 웃음이 다 마른 이들이 뜬 눈으로 서성였던 처소였다. 해외 한인 유적지 가운데 만남의 장소로 중국 연변 일송정과 함께 매우 특별한 유적지이다.

다음은 혁명광장으로 이동하여 ‘혁명의 불’을 찾았다. 이 기념 불꽃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불은광장에도 있어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이 되었는데, 나는 이번에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 찾았다. 그것은 ‘아리랑의 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은 10월 1일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여 금년 9월 중순 즈음 태백산에서 재화하여 전국 지회로 순회하여 모시는 ‘아리랑의 불’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불은 혁명의 기념물이지만 우리는 ‘아리랑의 불멸성’을 기리려는 것이다. 이 ‘혁명의 불’은 가스로서 태풍에도 꺼지지 않게 기술적 완벽성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군이 관리하고 있다. 기술적인 설명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개념 정도는 확인하여서 소득이 있었다.

라즈돌노예역
치르치크아리랑

전용버스로 우수리스크로 이동하던 중 라즈돌노예 역사를 들렀다. 1937년 9월, 구 소련 스탈린에 의한 우리민족 강제 이주를 증언해 주는 곳이다. 사할린 지역에 사는 동포까지 불러온 이들을 이곳 역에서 태워 출발한 이주의

현장이다. 그날의 절망과 고난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 번 방문에서도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의 가혹한 여정을 아리랑으로 서사화한 작품을 만들어 교민들과 남북한이 함께 하는 공연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민족공동체가 아리랑이 민족의 노래라고 공인하는데, 이런 역사적 현장을 보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신희(한인 최초의 마을)를 경유하여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최재형, 이범윤, 안중근, 유인석 선생 등의 활동이 집약된 대표적인 연추 Ianchikhe 마을을 보았다. 연추하(延秋河)가 흐르고 있고, 상·중·하 세 마을이 보였다. 이 마을들은 북한과 러시아 국경인 두만강과 가까워 일대 한인마을 중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지금은 사라진 연해주 최초의 한인 마을인 지신희와 함께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이다. 특히 연추는 안의사가

최초로 의병을 창설하기 위해 찾은 해외 의병사의 메카이다. 의병들이 조국과 중국의 훈춘, 북간도 등을 오갈 때면 반드시 거쳤던 곳이었다. 안의사가 1908년 봄 최재형, 이범윤, 이위중 등 한인 지도자들과 동의회(同議會)를 조직한 의병 본부지가 있었던 곳이니 중요한 유적지이다. 당시 많은 고려인 마을이 있었다는 곳이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러시아 극동식으로 지어진 마을뿐이었다. 그럼에도 연해주 남쪽지역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희를 중심으로 남북 수십 리, 동서 사오 리를 흐르는 지신희강 주변은 아름다운 곳이다. 상상 만으로도 고려인들이 자리를 잡을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디어 크라스키노 안의사 단지동맹비를 마주했다. 연해주에서 버스로 4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러시아·북한 국경지역인 추카노프카라는 마을로 두만강이 멀지 않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안의사가 1909년 2월 동료 11명과 함께 왼손 무명지를 끊어 단지회(斷指會)(일명 단지동맹)를 결성하고 국권회복을 맹세하며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 네 글자를 썼던 역사의 현장이다. 비문을 읽고 해설을 들으며 격분과 함께, 의혈의 안의사 모습을 그리며 가슴 뭉듯함을 느꼈다. '역사를 뜨겁게 만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비에 새겨진 글이 선연한 핏빛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의 직계 조상 기정진, 기우만, 기산도, 기삼연님들의 의병활동이 안의사의 활동과 오버랩 되어 자긍심을 가져보기도 했다.



라즈돌노예역사 앞에서.



크라스키노를 찾아 뜨거운 역사와 마주한 필자. 사진은 옛 단지동맹비.

크라스키노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 다시 중국 훈춘으로 들어갔다. 조·중 경계지역 도시인 도문시는 두만강 너머 북한 산하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민족사의 비감을 오늘에 되짚어 보는 곳이었다. 이어서 봉오동 전투 승전지를 탐방하고 다시 연길로 이동하여 항일유적지를 탐방했다.

코
레
아
우
라
!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용정)중학교, 일송정 등 용정 지역을 탐방한 후 백두산을 다녀왔다. 저녁에는 돈화까지 이동하여 하얼빈행 밤 기차를 탔다. 장장 8시간, 이튿날 아침 하얼빈 평방역에 도착했다. 먼저 찾은 곳이 731부대(죄증박물관)이다. 끔찍한 생체실험과 화학실험을 자행한 일제의 잔혹상을 상징하는 곳이다. 건물도, 비치된 유물도, 모두 일그러진 고통스런 얼굴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특히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는 오래 있기가 싫었다. 일제의 명령이 깊게 전해져 안의사 유적을 찾는 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드디어 하얼빈 역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도착했다. 국내의 보도를 통해 본 것보다 위용이 느껴져 뿌듯했다. 1909년 10월 26일의 안의사의 장거를 기념하는 뜻 깊은 기념관이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삼 년 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죽노니 우리 이천 만 형제자매는 각자 분발하여...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원한이 없겠노라”는 것이 안의사의 유언이었고, 소망이었다. 이 문구는 우리 모두를 압도했다. 이 앞에서 누군들 떳떳할 수 있겠는가? 단지 마음을 가다듬어 역사만이라도 바로 보는 자세를 갖출 뿐이었다.

교과서의 흑백 사진과 몇 년 전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의 모습이 떠올랐다. 1907년 연해주에 도착한 안의사는 단지동맹에서 맹세한 대로 구국의 의지를 품고 기다렸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

일 이토 伊藤博文가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 프체프와 회담을 위해 온다는 정보를 듣고 동지들과 치밀한 준비를 했다. 하얼빈 역에서의 거사는 안의사가 맡기로 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 예상대로 이토는 열차 안에서 회담을 마치고 하얼빈 총영사, 궁내대신 비서관, 만주철도주식회사 이사의 호위를 받으며 러시아의 장대를 향해 내려섰다. 순간 사열대와 환영 군중의 뒤편에서 숨죽이고 있던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용정) 중학교.

안익사의 권총이 국모시해, 국권침탈 국적^{國賊} 이토를 향해 불을 뿜었다. 이어 이토는 물론 주변의 몇 명이 함께 비틀거렸다. 총성으로 대열이 흩어지고 급기야 러시아 의장대와 호위대가 안익사를 덮치듯 달려들었다. 이에 안익사는 당당하게 마주하며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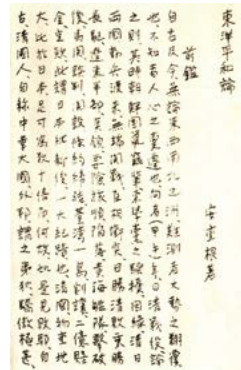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총성보다 더 크고 장렬하게 ‘대한만세, 대한만세’를 외친 것이다. 대한민국^{大韓國} 의병^{義軍} 참모중장^{參謀中將}, 특과독립대장 겸 아령지구군사령관으로서의 당당한 군사활동이었다.

안익사가 총을 쏜 장소에는 ‘삼각형’, 이토가 코코프체프 쪽으로 쓰러진 자리에는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의병대장 거사 현장이 이 두 가지 표시로만 증거하니 소중한 곳이 아닐 수 없다. 인류문명 발상지가 한 점 ^點으로만 증거하듯이, 위대한 동양평화 정신 발상지도 이 두 점으로만 증거하고 있었다.

2014년 첫 번째 ‘아리랑로드’ 확정을 위한 하얼빈 지역 답사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의 현장 답사였다. 이제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기념 제1호 아리랑 음반, ‘역사적 기억의 전승, 의병아리랑’ 음반을 제작하며 미진했던 중국과 러시아 지역 의병유적지 답사에 대한 숙제를 마쳤다. 그리고 미루어 온 ‘안익사아리랑’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 아리랑 일췌 아라리야 (후렴) / 왜놈과는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어 / 팔건고 뛰어나와 의병되었네 // 동양-평
화 하잔 소리 / 하늘땅 온세상 진동하누나 // 다섯발 내디더 도적 쓰
러트리니 / 동양평화 대역사 시작되었네 // 서릿발 칼날같은 저 용
맹 / 아무르 흑룡강은 기억하러니 // 아무르 흑룡강 흐르고 흘러 /
동해로 동해로 아리 아라리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나는 이 ‘안익사아리랑’에 동양평화론을 담으려 했다. 유럽연합 못지 않은 한·중·일 평화체제인 동양평화론. 100년을 앞서 뒤통수에 설립 하려던 공동평화군 창설 구상. 이를 구상하며 꿈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벽참 감격. 그리고 이 구상의 완성을 위해 사형집행 연기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의 처참한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마주한 그 당당함!

소란함 속에서 아리랑을 읊조린다.

‘동양평화 하잔 소리, 하늘땅 온세상 진동하누나’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담론을 공유하게 해 준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www.arirang21.org)

한·일 민간교류단체가 뿌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 씨앗’

미래 양국의 평화 행복 상징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길

■ 글/사진 _ 오준교 제6기 안중근홍보대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대림사
치바도시치
선생과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9시 일본 나리다^{成田}로 향하는 OZ102기^機에 아내와 같이 몸을 실었다. 안중근의사승모회가 주관하는 ‘안의사 순국 104주기·탄신 135주년 기념 일본국 법요’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다. 언제나 여행은 첫날이 설렌다. 날씨도 쾌청하다. 전직 관료, 교수, 기업인, 변호사, 스님 등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남녀로 구성된 일행 24명의 표정도 모두 환한 모습이다.

옆자리 팔순 노인 분과 담소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난다. 노인은 작년에도 이 행사에 다녀 오셨고, 이번엔 부부동반으로 가시는 길이란다.

나리다에서 게이세이^{京成} 선으로 갈아타고 동경 우에노^{上野}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50분. 2시 42분발 신간선을 타야 한다. 간신히 시간을 맞추어 이날의 목적지 미야기현^{宮城縣} 쿠리코마코겐^{栗駒高原}으로 향하는 동북신간선 아마비코^{あまびこ}(메아리) 55호에 탑승했다. 시원하게 한참을 달리니 농촌 풍경이 펼쳐진다. 일본 들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황금빛으로 가득하다. 어디나 가을 들판은 풍성하다. 내 마음까지 더불어 넉넉해진다.

쿠리코마코겐역에 도착한 시간이 17시경. 오는 도중 장대비가 퍼부었는데 이곳은 날이 개어 상쾌하다. 이날 일정은 대림사^{大林寺}를 방문하여 안의사 영전에 분향하고 주지스님 사이토타이젠^{齊藤泰彦}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정돈된 경내로 들어서니 사이토 스님이 반갑게 맞는다. 치바도시치^{千葉十七}와 대림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일행이 왜 일본의 시골에 있는 작은 사찰을 방문하는지 알 수 있다.

-치바도시치(1885~1934): 휘순감옥의 헌병 옥리로 안의사의 인품에 감화되어 존경하였으며, 안

대림사가 주최한 환영회. ▶

안의사 탄신 135주년을 맞아 일본 대림사를 찾은 안중근의사숭모회 교류단. ▼



의사께 요청하여 순국 직전 ‘爲國獻身軍人本分’ 휘호를 받았다. 1921년 이 유묵을 갖고 고향인 구리하라시로 돌아와 안의사 영정과 유필을 모셔 기리며 공양하였으며, 치바도시치 사후에는 부인이 계속 공양하였다. 부인 사망 후 양녀 미우라 구니코(三浦くに子)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이 1979년 안의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묵을 한국으로 반환.

-대림사 : 미야기현 구리하라(栗原)시에 위치. 안의사와 치바도시치의 위패와 영정 안치. 안의사께서 쓰신 ‘爲國獻身軍人本分’ 유묵석비 설치. 1981년 이래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을 ‘안의사와 치바도시치 추도법요일’로 정하고 법요 및 한·일 친선행사 개최.

금년에는 9월 첫 일요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추모법요를 한 주 연기하였다. 주지스님이 우리 일행을 안내하여 독경을 하면서 안의사 영정에 분향하도록 하여 우선 안의사께 도착 인사를 드렸다. 안의사께서 쓰신 ‘爲國獻身軍人本分’의 힘찬 글씨가 새겨진 석비를 보니 가슴이 뛰었다.

안의사께 인사를 마치고 만찬장으로 향한다. “근동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면서 “오늘은 행사 전날이니 편안하게 드시고 즐기시라”는 주지 스님의 환영인사가 이어지고 만찬이 시작된다. 6시에 시작한 만찬이 9시가 다

되어 끝이 난다.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여독에 술기운까지 겹쳐 그대로 녹다운.

한·일 친선교류회 추모법요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은 제34주기 안중근의사·치바도시치 거사 추도 법요식이 열리는 날이다. 행사장인 대림사에 도착하니 경내는 깨끗하게 정비돼 있다. 한국에서 40여 명, 일본에서 80여 명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30분 주지스님이 입장하면서 추모법요식이 시작된다. 화려한 가사와 장삼, 멋진 채를 잡은 스님의 차림에서 추모법요 집전자로서의 정성과 권위가 그대로 풍긴다. 작은 범종이 세 번 울리고 개식 선언과 헌동, 헌화, 이어서 주지스님과 따님의 반야심경 독경소리가 그윽하게 울린다.

이어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분향이 이어진다. 대림사신도회 회장, 유족, 미야기현의회 의원, 구리하라시의회 의원 등 일본 측 인사들과 주 센다이 대한민국총영사 부부, 주 센다이 대한민국교육원 원장, 안중근의사숭모회 교류단 단장, 순흥안씨대중회 대표, 황해도중앙도민회 대표, 재일민단 관련 인사 등등, 나도 아내와 같이 분향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온다.

행사가 끝난 후 안동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측 단장이 멋진 한복을 입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

셨는데 눈썰미가 범상치 않다. 다음엔 우리 방문단장이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분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의사가 순국하실 때 모친께서 지어 보내신 흰색 한복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자리를 옮겨 오찬을 겸한 한·일친선 교류모임이 시작된다. 100여 명이 참석한 큰 행사이다. 방문단과 같이 온 공연팀 듀오아임의 무대가 이어진다.

1909년 안의사를 만나 시작된 치바도시치라는 일본인의 작은 정성이 오늘날 이렇게 큰 행사로 발전하였으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 오묘한 것이다.

이러한 행사가 일본의 시골 사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니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어 만찬행사로 '제13회 한·일친선교류회'가 있었는데, 우선 시단카이(史談會)와 청운사(靑雲寺)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시단카이 : 치바도시치의 고향 마을인 구리하라시 쿠리코마초(栗駒町)의 유지들로 구성된 50여 년 전통의 교양 친목 단체. 대림사 주지로부터 안의사의 사상 및 유헌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안의사 인품에 감화되었으며 그후 황해도중앙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일 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2002년부터 매년 9월 대림사에서 개최되는 추모법요식에 참석하는 한국 방문단을 위해 교류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안의사 순국 추모식에 20~30명의 참배단을 조직해 참석.

-청운사 : 치바도시치 생가 바로 위에 있으며 치바도시치 가족의 위패가 안치. 2002년 시단카이가 주축이 되고 지역유지들의 후원으로 사찰 입구에 '안중근의사와 치바도시치 거사의 현창공양비(顯彰供養碑)' 건립. 매년 9월 1일 현창공양법요 거행. 이러한 사업을 통해 안의사의 평화사상 전파에 앞장서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한·일친선교류의 거점 역할 수행.

교류회 만찬에 참석하기 전 청운사와 치바도시치 거사의 생가를 찾았다. 청운사에 도착하니 주지스님이 마중한다. 현창공양비 앞에서 간단한 예를 올렸다. 주지스님은 걷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데도 우리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대형 석비에 '民族の英雄 安重根義士. 情愛の志士 千葉十七居士 顯彰供養碑(민족의 영웅 안중근의사. 정애의 지사 치바도시치 거사 현창공양비)'란 글자가 선명하다.

다시 만찬장으로 이동한다. 개회사에 이어 양국 국가 제창 순서가 있는데 오랜만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마지막 4절은 목이 메어 제대로 불리지 않는다. 일본 땅이라서 그런가. 이어 구리하라시 구리코마시단카이 오노테라(小野寺) 회장이 "안의사와 치바 두분의 깊은 우정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의 환영인사를 하였다. 우리 측 단장의 답사, 구리하라시 시장과 주 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이범연 총영사의 축사, 선물교환, 내빈 소개 시에는 나도 아내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정갈하게 차린 음식과 테이블 위에 나란히 세워진 양국 국기가 모임의 격을 말해준다. 양측의 공연이 이어지고, 시단카이 전 회장은 마술 공연까지 펼치며 만찬장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한다. 기념사진을 찍고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 이러한



일본 사담회가 개최한 '제13회 한·일친선교류회'.

작은 모임이 씨앗이 되어 한·일친선교류가 확대되고 양국 국민이 상부상조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그려본다. 밤 9시가 넘어 숙소로 돌아왔는데 몸은 피곤해도 가슴은 훈훈하다. 아내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길 잘했단다.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의사 순국터.

순국비 윤봉길의사 암장터와

추모법요와 교류회 등 공식 일정을 마치고 둘러본 이번 답사 코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윤봉길의사 순국비’이다. 9월 16일 찾은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소재의 윤의사 암장터는 모골을 송연하게 했다. 일행들은 순국비 앞에 고개 숙여 참배했다.

윤의사(1909. 6. 21. ~1932. 12. 19.)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된 일본 천황 생일과 전승 기념식전에 폭탄을 던져 상해점령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大川 대장 등 요인을 폭살,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한 독립운동가이다.

윤의사는 거사 직후 체포됐고, 현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 받았으며 11월 일본에 이송, 12월 19일 비밀리에 총살됐다.

일제는 윤의사 유해를 길에 묻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 일행이 찾은 암장터가 바로 그 장소였다. 이곳 순국비는 1992년 순국 60주년을 맞아 민단民團 이시카와 지방본부가 중심이 되어 4월 21일 건립했다. 일본 행정당국이 순국비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 정성이 가득하다.

일찍이 중국 총통 장개석蔣介石은 “중국군 100만 대군도 불가능한 대업을 대한민국의 용사가 해냈다”고 윤의사의 의기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윤의사께서 1930년 상해로 망명하시면서 남기셨다는

‘丈夫出家不生還 사나이 집을 나서니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귓전에 생생히 들려오는 듯했다.

시간들 나를 돌이켜본

돌이켜보면 그간 지나온 세월,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하듯 직장생활 하느라 앞만 보고 달렸다. 옆과 뒤 돌아볼 새 없이……. 이번 행사는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생각할 여유를 가져다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三人有行 必有我師”한 공자 말씀이 떠오른다. 추모법회와 교류회를 통해 일본인들의 진지함과 엄숙함 그리고 세밀함을 가까이서 본 것은 적잖은 배움이었다. 일본 원근 각지에서 시골 쿠리하라栗原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법요에 참여하고, 사찰을 자진해 청소하는 모습에서 안의사를 향한 일본인들의 진실된 숭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성숙한 사람은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것 아니겠는가. 무조건 자기 나라를 편들거나 다른 나라를 헐뜯는 일은 지성인이 취할 바 아니리라. 안의사의 살신성인 애국심과 고귀한 동양평화사상에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던가…….

9월 17일 저녁,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니 피곤이 물려온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배움과 즐거움에 오히려 정신은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다.

국제시장과 굳세어라 금순아

■ 글 양승국 _ 제2기 안중근홍보대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1·4후퇴와 흥남부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리
봤다 찾아를 봤다’

현인 선생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를 속으로 되뇌면서 이 글을 씁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았습니다. 영화는 초반부의 과거로의 회상 장면에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 철수 현장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굳세어라 금순아’가 떠오른 것이지요.

1·4후퇴 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 함정에서 내려준 그물망 같은 줄을 기어오르는 소년 덕수, 그의 등에는 어린 여동생 막순이가 꼭 붙어 있습니다. 덕수는 막순이에게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꼭 붙잡으라!”라고 신신당부 합니다. 그러나 거의 함정 위에까지 다다랐을 무렵 막순이는 그만 다른 피난민에 떠밀려 떨어지고 맙니다. 동생을 애타게 부르는 소년 덕수의 피 토하는 절규. 여기서 ‘굳세어라 금순아’ 1절 후반부 가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
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먼저 배에 올랐던 덕수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배를 내려가면서 덕수에게 “내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어머니와 두 동생을 잘 보살피거라!”라는 말을 남기는데, 그게 그대로 장남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덕수 가족은 먼저 내려와 부산 국제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던 고모를 만나 국제시장에 정착합니다. 저는 부산에 근무하였기에 낮익

은 국제시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니 반갑더군요. 여기서 또 ‘굳세어라 금순아’ 2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님이 떠오릅니다. 제 아버님도 반공포로로 석방된 후 부산 범일동에서 6촌 형님을 만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6촌 형님으로부터 “네 아버지, 어머니는 군에 간 아들 - 제 아버지입니다 - 기다려야 한다고, 내려오지 않으셨단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사실 제가 영화 첫 장면의 필사적인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보면서부터 계속 눈물을 흘린 것은 이런 제 아버님이 더 생각났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소년 덕수는 천막학교 수업이 끝나면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구두통을 든 덕수의 목에는 헤어진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는다는 글판이 매달려 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난리통에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 가사 중에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가 있지요? 당시 영도다리는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흥남부두에서 금순이를 잃어버린 노래의 주인공은 혹시나 금순이를 찾을까 하여 영도다리를 찾아왔다가, 쓸쓸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는 남자의 머리 위로 초생달만 외로이 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노래를 젊어서부터 많이 불렀지

만,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라는 가사에 애타게 가족을 찾는 그런 비통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 노래를 입에 올리고서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그 의미

전쟁 직후 국제시장통에는 배고픔에 떠도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지나가는 미군들은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던져줍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주우려고 달려들고, 그러다가 덕수는 힘 있는 아이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예!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프차를 타고 지나던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먹으려고 달려든 적이 있으니까요. 미군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가 마지막 헤어질 때 한 말은 평생 덕수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 서울대에 합격한 동생이 학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 덕수는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서독행 광부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 굳이 서독광부가 될 필요가 없는 덕수의 친구 달구는 이런 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자신은 가슴 뵙뵙한 서양 여자들 보기 위해 가야한다며 주저하는 덕수에게 지원서를 쓰게 합니다. 이후 이들은 파월 근로자로도 같이 가는데, 이들의 평생 우정이 또한 가슴을 따뜻하게 하더군요. 덕수는 서독에서 탄광 가스 폭발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독 간호사 영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도 골인하지요. 서독에서 검은 탄가루를 마시며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한 덕수는 이제 평생 꿈이었던 선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가 죽고 술독에 파묻혀 사는 고모부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모가 평생 일구어온 가게 ‘꽃분이네’를 처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덕수에게 ‘꽃분이네’는 단순

한 가게 이상입니다. 덕수는 고모부에게 “그 가게 제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월남 기술자로 갑니다. 영화에서 덕수가 그런 결심을 할 때 덕수의 손에 든 해양대 합격통지서가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형님, 누나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희생하던 그런 형님, 누나들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덕수는 자신이 흥남 철수 현장에서 겪은 것과 똑같은 상황을 목격합니다. 베트남의 어느 강변 마을의 주민들을 배에 태우는 순간 베트남이 기습을 하는데, 이 와중에 배에 타던 여동생이 물에 빠지고 오빠가 동생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순간 덕수의 머리에는 흥남부두에서 물로 떨어진 여동생이 생각났겠지요. 물에 빠진 여자 아이의 얼굴에 여동생 막순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자, 덕수는 망설이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하여 배에 태웁니다. 소녀를 먼저 배에 태우고 뒤이어 배 위로 몸을 걸치던 덕수의 다리에 베트남의 총알이 와 박힙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덕수가 절뚝거리며 국제시장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덕수가 바로 여기서 다리를 다친 것이군요.

웃음꽃 속의 눈물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뺨을 흘렀다 멈추었다 하던 눈물은 덕수가 여동생 막순이와 만나는 장면에서 애써 막아놓은 제 뺨의 독을 넘어 마구 흘러내립니다. 1983년 ‘KBS 이산가족찾기’ 행사 때 덕수도 친구 달구와 함께 방송국으로 달려오지요. 그리고 이미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벽보로 뒤덮인 KBS 방송국 벽면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는 벽보를 붙이기 위해 달구의 무릎을 탄 채 손을 한껏 위로 뻗치고, 방청석에선 또 하나의 글판을 들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입양된 막순이와 화면 위로 눈물 상봉을 합니다. 흥남부두 철수 때 배에서 떨어



영화 국제시장은 흥남부두 철수 장면을 시작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월남전, 이산가족찾기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애환을 필름에 담아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진 막순이는 다행히 미군의 손에 구조되어 해외로 입양 되었더군요. 막순이가 오빠에게 귀 뒤의 점을 보여주고,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국말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꼭 붙잡으라이!”를 얘기할 때, 제 눈물은 폭풍 눈물로 변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제가 폭풍 눈물을 흘린 것은 제 아버님 또한 당시 “아버지 000, 어머니 000, 동생 000를 찾습니다”라는 글판을 들고 방송국 방청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비록 전쟁 직후 부산에서 만난 6촌 형님으로부터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아버님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볼 수 없어 방송국을 찾은 것이지요. 결국 찾지는 못하셨지만.

영화는 덕수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온 일생을 비추다보니, 흥남부두에서부터 광부와 간호사의 서독 이야기, 월남전 이야기, KBS 이산가족찾기 이야기 등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각 사건마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는 못하고, 이야기 나열식으로만 그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평론가들에게는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형님, 우리의 아버지

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영화평론가의 평을 무색하게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는 것일 테구요.

국제시장……. 사실 제가 부산에 근무하는 동안 국제시장을 많이 오가면서도, 이곳에 얽힌 피난민들의 슬픔과 애환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니, 관심이 없었던 게지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국제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의 배 이상 늘었다는군요.

요즈음 이야기(스토리텔링)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국제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제시장에 그런 이야기의 옷을 입혀주었으면 좋겠군요. 저도 부산에 가게 되면 다시 국제시장을 거닐면서 영화속 덕수 엄마가 남편도 없어 혼자서 힘으로 역척스럽게 세 자녀를 키우던 장면, 덕수가 구두통을 들고 뛰어다니던 장면 등을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살의 어린 청년이던 제 아버님이 포로수용소를 뛰쳐나와 홀로 외로이 자유 대한의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모습을 생각하며 국제시장의 그 길을 저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인공치아 임플란트의 선택

■ 글 김영수 _ 제5기 안중근홍보대사, 前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학장



역사적으로 치아 상실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역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상의사들이 의욕만으로 실험적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25년 간의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개발하여 전 세계 치의학계에 혁명을 이룩한 스웨덴의 브러너막 교수가 지난해 12월 20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세계가 그를 애도한 바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해도 된다-아직은 해서는 않된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사람의 치아 효능에 버금가는 브러너막 임플란트는 의심 없이 정규 치료법으로 자연스럽게 채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분주히 유사제품을 생산해서 이득을 챙기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작동 기계로 제작하니까 정밀 제작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기계부품이 아니고 생체 내에서 안전하게 자연치아처럼 장기간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러너막 교수가 발명한 임플란트를 최초로 시술 받은 사람이 40년 간 사용하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잘 관리했을 때 반영구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생체환경이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타이타늄 표면 특수처리 방법으로 생체 친화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연구로 효율이 더욱 증진되고는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돈에 관심을 두고 충분한 연구도 없이 제작하여 팔고 있으나 외국제품이나 국내제품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장기 효율이 확인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난 36년간 40여 종의 국내외 제품을 임상적으로 검증해 오고 있는데 외국 제품 중에도 나쁜 재료들은 치과의사와 환자에게 손해만 끼치고 의료시장에서 결국 소멸되었지만, 새로 생산되는 재료는 효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환자들은 치과의사들이 인플란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택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는 동물의 이야기이고 단기실험은 단기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해야 할 치아이므로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4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현장 스케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울려 퍼진 나라사랑의 함성

■ 글/사진 장정자 _ 안중근의사기념관 사업팀장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들썩인다. 10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우리들의 나라사랑을 만나는 그 곳!'이란 주제로 27개 독립운동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이 참가해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가 열렸다.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는 2012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다가 올해엔 처음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박람회를 앞두고 감기몸살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조형물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직접 독립운동가가 되어 체험 활동하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강한 에너지를 받았던 덕인지, 나는 행사 기간 동안 평소보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던 것 같다. 나라사랑의 함성이 가득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 박람회 현장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1일차

톡톡 튀는 아이디어, 28개 체험 부스

독립기념관 윤주경 관장의 인사말과 참가기관 대표자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개막을 알리고,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민 28개 체험부스가 박람회 개최 준비를 마쳤다. 우리 기념관에서는 이해균 사무차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준비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송국 기자가 안중근의사 분장을 한 학생과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의사 하얼빈 의거 재현, 안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재현해 즉석사진을 찍어주는 체험 활동을 준비해 관람객을 맞았다.

안의사 복장을 하고 권총을 겨누며 포즈를 취하는 여학생의 모습을 행사 취재 나온 MBC에서 달려와 인터뷰 하고, 부끄러워하는 여학생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응원을 보내자 어깨를 한 번 으쓱하며 이내 토박토박 대답도 잘한다.

오후 5시, 기관 참석자들의 교류회 및 개막식과 기관별 체험부스 준비 등으로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내일 본격적인 손님맛이를 위해 28개 체험부스가 조용히 문을 닫는다.

2일차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나라사랑 체험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 참가기관 체험 부스가 하나씩 문을 열고, 박람회 오픈 준비 중인 관계자들의 바쁜 움직임 속에 박람회장이 시끌벅적!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온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면서 각 기관 체험 부스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진다. ‘우리 기념관으로 오세요!’, ‘어느 기관 체험부스가 인기가 많나?’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된 ‘현충시설 소개 전시부스’는 28개 참가기관을 소개하고, 기관별 체험활동과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와 안내를 통해 참가자들의 체험활동을 도왔다.

그때 어디선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린다. 독립운동가들이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을 피해 박람회장 이곳저곳으로 도망치고 구타당하는 독립운동가 피포먼스가 주위의 시선을 끈다.

이뿐 아니라 너도나도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오색풍선과 태극기, 체험활동 후 받은 기념품을 한 아름 안고 까르르 웃으며 엄마, 아빠를 재촉해 또 다른 체험부스로 향하는 어린이들의 열기가 박람회를 달아오르게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선 부모님들의 권유에도 아이들은 시큰둥하고, 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재밌는 행동과 모습들이 눈에 들

어온다.

안성3·1운동기념관의 태극기 만세가방 만들기, 백범김구기념관의 나의소원 쓰기, 독립기념관의 독도의 역사·자연학습 체험 등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하고 체험 활동 하며 이날 하루 등줄기에 땀이 났을 체험 참가자들, 여러분 나라사랑 체험 즐거우셨나요?

해가 어느덧 저물고, 친구들과 박람회를 찾은 조카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먼 길 왔으니 밥은 사줘야겠네요. 가장 바빴던 하루,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봐요~

3일차

새 경험과 행복을 선사한 박람회

어느새 박람회 마지막 날. 행사 기간 동안 날씨도 맑고 체험 참가객도 많아 성공적인 박람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다가 이번 박람회 덕분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참가자들의 밝은 모습과 어린이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니 덩달아 행복해진다.

아직도 가슴에 남은 그때의 여운을 되새기며,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던 몇몇 기관들의 체험활동 사진을 소개하는 것으로 ‘2014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현장 스케치를 마친다.

김한중의사기념관(사진 좌측부터),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매현기념관.



세계 평화론의 선구자, 안중근의사



■ 글 김경모 _ 서울 양천고 3학년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가 된 이후로 일본은 더욱 우경화와 옛 군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갈구하고 있는 현실이 거의 매일 언론에 회자된다. 유난히 국사 과목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두 눈 똑바로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훑어보고, 귀를 쫑긋 세워 TV 화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잠잠해질라치면 또 다시 승부수라도 띄우겠다는 양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독도문제와 일제 치하의 위안부 문제는 닳고 닳아서 더 이상 께메고 덧댈 곳 없는 낡은 청바지가 되어 버린 듯도 하지만 여전히 내겐 신상품 청바지처럼 다가온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치욕스럽고 폄박받았던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고 계승시켜 나갈 때, 과거의 수모와 피지배의 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3년 2월은 여러모로 나에게도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간다는 설레임과 부담감 속에 영어, 수학 같은 입시과목을 선행학습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총체적 결정체인 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우리 역사의 한 증인이 되기 위해 무던히도 발품을 팔았다. 집과 학교, 학원의 단순한 이동의 틀을 벗어나고, 박제된 페이지 속의 정지된 역사의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되살려내는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당시에 나의 상황으로 대입해 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여자 친구가 없는 나에게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는 초코렛 선물 하나 받지 못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 더욱 외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날이었다. 금혼령을 내린 로마에서 몰래 사랑하는 연인의 백년가약 의식을 거행해서 축복해 준 발렌타인 성인을 기리는 이 날이 떠들썩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묻혀 잊혀져가는 세태 속에서도 그의 희생정신만은 꼭 기억하고 싶은 오기가 더욱 발동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에게도 2월 14일은 잊혀지지 않는 슬픈 날로 다가온다. 바로 안중근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14일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같은 달 19일 중국 하얼빈 역에 안중근의 사기념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한·중·일 삼국의 눈치보기와 명분 내세우기의 묘한 분위기 속에서도 2006년 이후로 우리 정부의 계속된 기념 표지석 설치 요구에 결국 중국 정부가 기념관 건립으로 승화시킨 이 사건은 소

치 동계 올림픽의 열띤 응원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쾌거의 한 페이지로 다가온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층 가까워진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의 선물이자, 일제의 도를 넘은 역사 왜곡에 대해 각성의 경종을 울리는 공동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하얼빈 역을 방문해 기념관을 둘러보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1번 플랫폼에 서서 그날의 충성의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할 기회가 많아진 만큼 향후 105년이 넘도록 못 찾아온 안의사의 유해도 꼭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국권침탈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의 안의사의 치밀함과 침착성은 거사의 성공을 확신하는 민족의 염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이토의 사진을 확인하고도 그의 이름을 불러 재차 확인하여 총탄을 발사한 뒤, 그것도 모자라 주변 3명의 수행원들에게까지 발사해서 마무리 한 그날의 사건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용기와 차분함을 잃지 않은 안의사의 태도는 평소 그렇게도 갈망했던 조국의 자주권 확립에 대한 열망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 없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정에서 설 때 의연하게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 재판 받는 것이고, 암살자로 불리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던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모습도 일관된 안의사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의사의 이런 심지 굳은 결단력과 의지 표명 이외에도 감옥 생활할 때의 배움에의 열정과 고매한 인품에 대한 일화도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 교도관과 간수들이 찾아와 가훈과 교훈을 써주길 간청할 정도로 안의사의 학문적 식견이 뛰어났고, 인품이 바른 사람으로 존경받을 정도였으니, 적과 동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로서 그의 면모는 옥중에서 더욱 빛이 났으리라 본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그의 독서 사랑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명언으로 남아 잘 안 읽고, 잘 안 쓰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전해준다. 나부터도 볼펜으로 메모하기 보다는 핸드폰에 메모장 남기길 선호하고 책읽기보다 인터넷으로 눈에 띄는 기사 보기에 익숙해졌으니, 이를 반성하고 안의사의 정신을 본받아 독서의 참맛과 희열을 느껴보고 싶다.

안의사를 생각할 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는 첫 문장부터 시작하여 비장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세상에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나타나라는 편지가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리게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조국의 운명과 맞바꾸면서도 절대로 삶을 구걸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라는 짧은 편지를 쓸 때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어머니의 편지는 죽음마저도 육신의 사라짐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를 살리고 대한국민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종교적 믿음이 되어 아들에게도 고이 전해진, 지고지순한 신앙 고백서가 아니었나 싶다.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보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가슴 깊이 다가오는 진솔한 믿음의 결정체가 이 편지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머니께 물려받은 독실한 신앙관은 의병으로 활동할 때에도 잘 나타난다.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해서 일본군과 상인 10명을 생포하고도 모두 풀어줬던 것은 전쟁 포로의 인도적 생환을 규정한 국제법을 따르고자 했던 단순한 노력을 떠나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께 배운 신앙과 이를 실천한 인격의 수양과정이 있기

에 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최우선이고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람 사랑정신은 조국의 운명을 건 조직적 항일투쟁 정신과 활동보다 더 우위에 있는 보편적 인권사상이어서 안의사의 여타 활동과 업적에 깃들여있는 소중한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본다.

안의사를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감옥에서 항소, 상고를 안 하고 5개월 후에 처형 당할 때까지 쓴 ‘동양 평화론’이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조금만 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인류평화에 길이 남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서술된 ‘동양 평화론’이라는 문화유산이 탈고 되었을텐데 말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앞잡이가 되어 서양에 맞서자는 동양 일체론을 허울 좋게 동양 평화론으로 둔갑시킨 이토 히로부미의 주장을 뒤집고 민족의 자주와 민족끼리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한 안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사상사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을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였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비록 기록유산이라는 미완의 한계로 남았을지라도 그 한계를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민들이 뼈곡이 채워 나가야 하리라 본다.

그의 정신이 만주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와 세계만방에 퍼져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오리라 본다. 약소국을 끊임없이 침탈하고, 이권과 권력에 눈먼 지도자가 자국민을 압박하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제 2,3의 제국주의자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안중근의사의 값진 희생과 부활에 한없는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진정한 영웅의 길

- 『안중근의사의 삶과 나라사랑 이야기』를 읽고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싸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몇 년 전에 본 뮤지컬 ‘영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중 하나이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본 재판장에게 호통을 치던 조선의 사나이 안중근, 그가 뮤지컬의 주인공이었다. 뮤지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 없는 나에게 생애 첫 눈물을 흘리게 한 뮤지컬 ‘영웅’, 그 영웅이 바로 안중근의사였다. 그날의 감동은 한동안 내게 ‘영웅’의 대사와 노래들을 외우게 했고, 안중근의사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읽게 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대해 끝없이 감동하게 만들었다.

안중근! 그 이름 석 자로 국민을 울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영웅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많은 위인전에서, 드라마에서 그의 이야기를 접해왔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줄 알면서도 이토를 처단했고, 그 자신도 순국했다. 그도 사람인데, 죽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의 조국, 이 땅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에 짓밟히고 자주권을 잃은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아니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한 그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안중근의사의 삶과 나라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이 책은 안중근의 사승모회가 발간한 책으로 안중근의사가 뒤순감옥에 수감되어 계시던 동안 그해 12월 13일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910년 순국하기 1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쓰신 옥중 자서전을 책으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그 원고가 세상에 나타날 리 없었고, 해방 후에도 그 원고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으나 1968년 겨울 일본어 프린트본이 발견되어 찾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 책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안중근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다.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항일운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중국 산둥과 상하이 일대를 여행하며 조직원을 모았고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운동에 힘썼다. 그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고 의병부대를 조직해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안중근의사가 일제에 맞서기 위해 의병을 조직하며 하셨던 말씀이다.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한 번 의거로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 번에 이루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열 번에 이르고, 백 번 꺾여도 굴함이 없이, 금년에 못 이루면, 내년에 도모하고, 10년, 100년까지 가도 좋다.” 독립을 향한 안중근의사의 거침없이 강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일제에 의해 식량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던 의병을 이끌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독립의 꿈을 놓지 않던 안중근의사의 열정과 인내를 느끼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어렵고 힘든 우리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고뇌하고, 치열하게 살아갔는지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하기로 마음먹고 홀로 차디찬 여관방에서 장차 행할 일을 생각하며 강개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읊은 시를 되새겨 보았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어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어 영웅이 때를 지으리도다. 천하를 응시함이어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거워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히 한 번 가면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도다. 쥐도적 이토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그는 역시 강한 사람이었다.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나라를 집어 삼키고 국민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마저 일제의 무단통치 아래 사라져갈 때, 그는 지지 않았다.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처단하고 감옥에 갇혀 재판받을 때이다.

“나는 일본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의무가 없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것은 대한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

멋있다. 참으로 훌륭하다.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에 대한 충정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가 존경스럽다. 그의 담담함이, 또한 당당함이,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을까? 재판에서도 의연했던 그의 정신을 이어 수많은 이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마침 어제는 69주년 광복절이었다. 교황의 방문에 밀려 광복절 소식은 요란하지 않게 뉴스 한 칸에서 다소 소박하게 들려왔다. 우리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을까? 의문이 들었다.

사실 나도 그저 그런 국경일 중의 하루로 광복절을 보낸 적이 많았다. 하지만 어제는 안중근의사의 이야기를 읽은 후라 광복절의 감회가 다른 때와는 달랐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안의사께서 오늘의 우리를 보신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이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분의 치열했던 삶을 다시금 되새기고 본받아야겠다. 그날의 그분의 시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만세여,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여, 만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가톨릭 韓·日 주교단 기념관 방문

한국과 일본 주교단이 201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았다. 한국 측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광주대교구장을 비롯한 각 교구의 주교 17명과 마에다 만요(前田万葉) 오사카 대교구장을 비롯한 일본 측 주교단 15명이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이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안의사는 민족자존과 국권수호, 정의실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라며 평화는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때 구현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특히 일본측 주교단은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적 갈등에 큰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기념관 방문이 일본 내에서 안의사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희망했다.

금년으로 20회가 되는 ‘한·일주교교류모임’은 1996년 한국의 이문희 대주교와 일본의 故 하마오 추기경을 중심으로 양국 역사인식 계발을 위한 ‘한·일교과서문제간담회’의 시작이 그 계기가 되어 매년 양국을 오가며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분회 안응모 이사장은 한·일주교단의 기념관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2월 4일 오전 명동 교구청을 방문, 염수정 추기경과 환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 이사장은 한·일주교단의 안중근의사기념관 방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일본 주교단의 방문으로 안의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기를 바라며, 일본에서의 법요거행 및 한·일친선행사, 중국 하얼빈 기념관 건립과 그에 따른 중국인들의 반응 등 우리 민족의 자존과 의지로 지켜야 할 가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추기경과 환담을 나누었다.

‘爲國獻身 軍人本分’ 순국 104주기, 의거 105주년 육군 방문강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육군3사단 18연대(진백골연대)에서 안의사 순국 104주기와 의거 105주년을 맞아 특별 방문강연을 시행했다. 2014년 3월 5일 3대대를 시작으로 19일 1대대에서 진행된 강연은 3월에 맞이하는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다함께 생각하고 장병들의 복무자세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시행했다.

육군 3사단 18연대는 3·1절과 안의사 순국, 천안함 피격사건을 3월 3대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3대 사건 중 26일 ‘안중근 장군 순국 104주기’를 맞아 기념관 이강연 사무처장은 오영섭 연세대 교수와 김대근 오방리더십센터 원장(안중근홍보대사) 등 2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했다. 초빙강사들은

육군 유목과 관련 자료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장병들에



게 안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전했다.

하반기에는 10월 29일 18연대 본부대, 10월 31일 6공병여단, 12월 2일 18연대 2대대, 12월 10일과 11일에는 5사단 본부대를 찾아 ‘청년 안중근의 삶과 꿈’을 주제로 연세대 오영섭 교수의 방문특강이 진행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찾아가는 기념관’을 모토로 각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시 안중근 전문 강사를 파견해 현지방문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차하얼학회 안의사 동상 기증



중국 차하얼학회(주석 한광밍)가 2014년 4월 30일 안중근 의사가기념관을 찾아 중국 작가 쿠이유 씨가 제작한 청동상 '대한의사 안중근(55×65×20cm)'을 안응모 안중근의사승 모회 이사장에게 전달, 기념관에 기증했다.

중국 차하얼학회는 중국 최초의 민간 싱크탱크로 지난 2013년 12월 본회와 안중근의사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헌화 참배 안의사 '마지막 유언' 서예작품 기증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 우측)이 2014년 7월 17일 취임에 앞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 헌화 참배하였으며, 6개월 후인 2015년 1월 15일 기념관을 다시 방문, 자신이 직접 붓글씨로 쓴 서예작품 '안의사 마지막 유언'을 정하철 상임이사에게 전달, 기념관에 기증했다.

김승기 안중근홍보대사 뤼순감옥 흙으로 무궁화 식수



'뤼순감옥 구지(舊地) 흙을 배토하여 무궁화를 심는 행사가 2014년 10월 20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앞 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식수식에는 중국 뤼순감옥 구지에서 직접 흙을 가져온 김승기 안중근홍보대사(예비역 대령, 전 국방대 교수), 이강연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기 홍보대사가 뤼순감옥에서 흙을 가져온 동기는 이해 7월, '국외사적지탐방행사에 대학생 아들과 함께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뤼순감옥 답사 후 이곳이 안의사뿐 아니라 신채호 선생 등 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옥돼 순직한 독립운동의 성지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안의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밤새 고민한 끝에 뤼순감옥의 흙을 가져가 우리 국민들이 보고 느끼도록 한다면 안의사의 위대한 정신을 되살릴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감옥 구지 관장의 협조를 얻어 '감옥 안 흙'과 '감옥 동문(東門) 밖 흙' 각 1통씩을 국내로 가져왔다. 그래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동산에 이 흙을 배토해서 무궁화를 심는다면 안의사의 위국헌신 정신이 무궁화로 다시 피리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김 홍보대사가 충남 논산의 농장에서 직접 골라 구매해 이날 식수한 무궁화 품종은 새하얀 꽃잎에 심이 붉은 '백단심 일편단심' 무궁화로써 백의민족과 애국애족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김홍보대사는 36년 간 군문에 몸담은 바 있으며, 퇴직(2014년 초) 후엔 안의사의 삶과 정신을 본받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

송일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만세 도슨트’

2014년 11월 10일, 외국인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안의사를 알리기 위해 배우 송일국 씨와 본 기념관 이주화 학예팀장이 함께 ‘송일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만세 도슨트’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어어학당 외국인학생 20여 명과 초등학교 5, 6학

년 학생 및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도슨트 진행 후 수료증을 받았다.



박한지 대위 위국헌신상 상금 기부

2014년 제5회 위국헌신상(충성부문)을 수상한 박한지 대위가 상금 중 200만 원을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부했다. 본회는 박 대위의 뜻에 따라 기탁금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위국헌신상은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안의사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2010년 공동 제정한 것으로 2011년 제2회 위국헌신상 수상



자 이우진 소령(당시 대위)도 상금을 본회에 기탁하여, 그 기금으로 군장병용 안중근 자서전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소식

- 축하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신규 임원(이사) 선임 (2014. 12. 11.)
 광동걸 스틱인베스트(주) 사장
 박창재 (주)에픽소프트 대표이사
 이민주 (주)에이티넵파트너스 회장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회장
 張賢云 제주 분마 이호랜드(주) 회장
- 수상
 김후란 고문 / 한국문학의집이사장 → 은관문화훈장 수훈(2014. 10. 29.)
- 취임
 한상순 이사 / 세립하이버 회장 → 황해도 도지사(2014. 12. 1.)
 장성훈 이사 / 대한적십자사 서울발전협의회장 → 제10대 고려대학교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 교수회 회장(2015. 1. 13.)
 이인실 이사 /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회장(2015. 02. 13.)
 안태근 자문위원 / 前 EBS PD → 호남대학교(문화산업경영학과) 교수(2014. 4. 1)
 강동구 자문위원 → KBS 목포방송국 사장 (2014. 8. 22.)
- 사무실 이전
 강신주 이사 / (주)삼신회장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75 도화동 성지B/D 801호(2014. 5. 1.)
 윤현주 이사 / 변호사, 前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708호(2015. 1.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

강상욱, 강신주, 강현송, 김경희, 김길생, 김길현, 김상욱, 김정자, 박동걸(신), 민남규, 박귀연, 박창재(신), 백성학, 안경오, 안근준, 안근배, 안승준, 안영기, 안영홍, 안용석, 안응모, 안택수, 유동성, 유상준, 유영희, 윤은기, 윤현주, 이민주(신), 이영욱, 이원태, 이인실(신), 조동성, 장상훈, 張賢云(신), 정하철, 조태형, 최재선, 한규택, 한광수, 한상순, 홍인기

평생회원

권영호, 권오성, 김승기, 김유일, 김용자, 김주태, 노수문(신), 박덕현(신), 박상규, 박인호, 박한지(신), 박현수, 박홍순, 백익웅(신), 선우영석, 손인준, 안덕주, 안순일, 안종일, 안종채(신), 양창선(신), 이강녕, 이강연, 이경림, 이기선, 이동훈(신),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 이용훈, 이우진, 이용열, 장재덕, 전진근(신), 정준영, 정지욱, 정하철, 최석진(신), 최재승(신), 최진일(여수진), 황덕호, 高橋公純(다카하시 고준)

특별·일반회원

특별회원 (30만원 이상)

박명환, 선주영, 손봉석(신), 신길현, 신지혜(신), 오영섭, 이희아(신), 최윤희, 황필홍(신)

일반회원

<20만원 이상>

안재관(신)

<10만원 이상>

김범상, 김장규, 박혁서, 안광웅, 안재관(신), 안창순, 안현문(신), 양동완, 윤광욱(신), 이상진, 장효성(신), 전종갑, 정창우, 한옥동, 황금자(신),

<5만원 이상>

강종구, 안은녀, 안준희, 안충모(신), 연광흠, 이부홍, 이양재, 이철호, 이태호, 이희만, 전대홍, 최현휴, 한응현, 허성열,

<3만원 이상>

강용식, 강종구(신), 강준(신), 김기영, 김동민(신), 김민지, 김운철, 김은혜, 김종훈, 김태정, 김학수, 노병식, 박경자, 박기선, 백승배, 서동균, 서예준(신), 안광순(신), 안동현(신), 안무원(신), 안봉주, 안봉희, 안상열(신), 안상욱(신), 안승현, 안을노(신), 안인환(신), 안재천(신), 안종균(신), 안준길, 양미, 양정호, 오점수, 율철남, 이경수(신), 이근식, 이대순, 이덕연, 이상훈, 이혜균, 장동표, 장세진, 장승환, 장정자, 장준환, 전명주(신), 전태수, 정용길, 정용재, 정용출, 정유빈, 정유훈, 정은선, 조재춘, 최광국, 최숙희, 최진, 허은경

단체회원

<국내>

안중근함 부대원 40명(120만원), 영도인(44만원), 월촌초등학교(30만원)

외국인 (단위 : 만 원)

<개인회원>

鹿野元 녹아원(51), 段勳 단 이사오(3,6), 高橋龍壽 카하시 다즈히사(3), 高橋龍淨 다카하시 다즈히토(3), 高橋千華 다카하시 치카(3), 香川昇 카가와 노부루 (3,6), 高橋節男 다카하시 스스오(3,6), 宮原一雄 미야하라 가즈오(3,6), 鈴木仁 스즈키 히토시(5), 辻本達雄 츠지모토 다즈오(5), 金森勉 가나모리 츠토무 (10)

<단체회원>

일본 大林寺 대림사(30), 史談會 사담회(10),

안중근 알리기 UCC공모 후원

(주)한국토피코리아(오세형) 200만원

추모실 현화

<개인>

김정숙, 명승희, 신길현, 안홍희, 이상근, 이지아, 이재은, 장효성, 정종섭, 高橋 다카하시(일본 오사카)

<단체>

공군제16전투비행단(최현국), 광복회 충북지부, 안중근함(현창호), 안중근문화예술인등산회, 월곡3·1정신선양회

기념관 후원(단위 : 만 원)

<개인후원>

김남희(4), 김연희(1), 문국현(8), 박강욱(0,5), 박소정(3), 박지원(0,1), 백소영(3,6), 신철호(60), 신호상(12), 유승현(0,5), 윤다원(2,4), 윤해수(36), 이강연(12), 이수진(12), 이윤정(6), 이장노(3,6), 이지영(8), 이혜균(6), 장정자(5,5), 조재원(1,2), 채내희(11), 최열(7), 최정은(7), 표정호(12), 한대림(6), 千葉英樹 지바 히데키(신)(5)

<법인후원>

한국산업정책연구원(500)

<기념관 관람안내 봉사>

(사)나라사랑봉사회(주말 관람안내), 서울시 중구시민봉사회(평일 관람안내)

안중근사랑회원 가입신청서

회원번호 :

회원구분 :

본인은 귀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안중근의사 추모·기념사업 활동에 동참하고자 안중근사랑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성명(단체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양, 음)	Mail address
자택주소	(-)	Tel) H. P)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	Tel) Fax)
가입동기/추천인		

- 정회원의 구분**
- ① 일반회원(연1회) 30,000원 이상 ()
 - ② 특별회원(연1회) 300,000원 이상 ()
 - ③ 평생회원(1회) 1,000,000원 이상 ()
 - ④ 어린이회원 희망금액
 - ⑤ 단체회원 희망금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 우리은행 : 009-177521-01-001

· 농협 : 097-01-174281

년 월 일

신청인

(인)

※ 회비납부(계좌이체)시 FAX 송부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안중근의사숭모회 귀중

100-874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TEL. 771-4195, 6 / FAX. 753-5033 / http://www.patriot.or.kr / mail : patriot1909@gmail.com

신개념 스포츠센터 통합 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서사시를 준비하는 IT연구개발 전문회사

(주)에픽소프트
epicsoft
<http://www.epicsoft.co.kr>
 TEL : (02)577-4161(대표) FAX : (02)572-0816
 E-mail : ceo@epicsoft.co.kr(대표)

스�포츠센터 관리 통합 솔루션

- 웹 기반 최적화된 회원 관리 솔루션
- 회원, 직원, 강좌, 클럽 시설, 기구 관리(QR코드 관리)
- 상품 판매 및 매출에 대한 각종 통계 분석 자료 제공

스포츠센터 경영 및 마케팅 지원 포털 서비스, 클럽 회원 및 개인 회원 지원(Support) 서비스

- 사업자회원-사업장 관리 지원 및 통계 서비스, 마케팅 및 경영 지원 멘토서비스 지원
- 개인회원 - 개인 회원 활동 내역 및 이력 관리 서비스, 피드백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검색, 질의, 정보, 맞춤형서비스, Mypage)

1월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서비스

- 교직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운동 측정 및 수집, 분석 서비스 제공, 운동 정보 안내 서비스 수집, 분석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계 분석 자료 제공, 멘토 서비스 제공 건강 및 운동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공유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외

1월(동계), 7월(하계)

- 안중근 평화학교 · 체험교실 운영

1월~12월



- 제4회 안중근 자서전 독후감 대회
- 제19회 학생 글짓기 대회
- 안중근아카데미 운영

스포츠, 레저, 헬스케어, 회원관리 전문 솔루션

SportsPro21

The Perfect Solutions for Membership Management

(주)에픽소프트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실현을 위한 ICT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휘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파, 사우나, 리조트, 승마장, 국민 체육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센터.

회원관리
 ○ 05주기 추모식 · 국제 친선 교류회
 수영장, 헬스, 골프, 스위시,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승마 : 정기회원, 멤버십VIP회원, 입일이용권

경영 정보 시스템(MIS)
 종속별 매출통계 분석, 전년전월대비 수입변화 분석, 체육관 이용현황 분석 (월별, 일자별, 시간대별).

스마트 관리
 ○ 26일
 스마트 회원관리, 마필관리, 예약관리, 교관강사관리

골프연습장 관리
 ○ 6주기 기념 (안중근의사 특별전) 타석예약/배정/이용, 대기자관리 및 타석자동제어(오토타입), 타석별 이용현황분석

아파트 주민센터 출입통제 시스템(자동문)
 전자키, RFID 카드에 의한 출입통제, 도난방지

웹(인터넷) 정보 공유 서비스 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 예약 결제시스템 가능

라커관리
 ○ 1월
 헬스, 골프, 사우나, 스파, 필라테스 : 라커자동배정, 열키시스템

리조트 회원관리 및 예약관리
 예약관리, 객실관리, 정산관리, 우물제관리, 락커관리, 매장관리

Smart Health Tutor
 ○ 7월 중
 QR코드 연동, 운동기구별 운동효과 및 운동방법(동영상)지도

- 안의사 탄신 136주년 기념식

9월 3일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IN 비만개선 프로그램
 ○ 일본 안의사 추모법요 및 한·일 친선 행사
 자가비만개선프로그램 전산화 개발 프로젝트

제12회 안중근 장학생 선발 및 UCC 공모전
 ○ 하얼빈 의거 106주년 기념식
 ○ 제5회 안중근평화음악회

<비만추진 및 모니터링>
 ○ 국제학술대회(일본)

<영양처방>

○ 안의사 문헌 발간

<운동처방>
 ○ 운동요법

미래창조과학부 전략과제

9월 6일

SMART HEALTH TUTOR

9월 중

QR코드 연동 운동기구별 운동효과 및 운동방법(동영상)지도



10월 26일



12월

- 스마트 웹 통합 관리 솔루션
- 건강/레저/스포츠 웹 포털 연동 서비스
- QR코드를 통한 운동 정보 및 영상 열람
- GPS를 통한 주변 또는 특정지역의 휘트니스 클럽 검색
- 개인의 운동 이력 관리 및 조회 서비스



지금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읽어보십시오

코레일관광개발과 안중근의사기념관 공동기획



대한국인(大韓國人) 의사(義士)

안중근 의 흔적을 찾아가는 역사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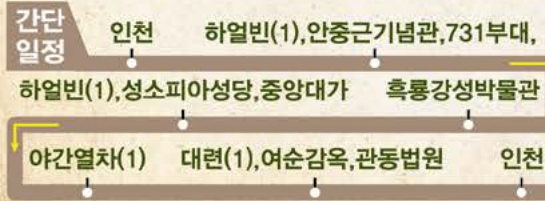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하얼빈/안중근기념관/대련 4일

상품가 799,000원 부터

출발 매주 목, 토요일 출발



아시아나항공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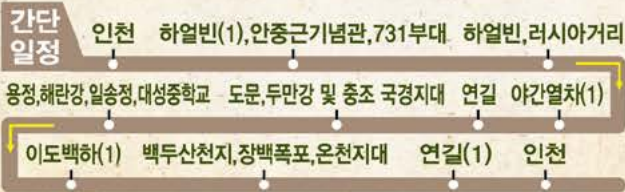
- NO탑
- NO옵션
- NO쇼핑

하얼빈-대련구간 야간침대열차탑승 (6인1실)

백두산(북파)/연길/하얼빈/안중근기념관 5일

상품가 1,049,000원 부터

출발 매주 수, 목요일 출발



아시아나항공

특전

- NO탑
- NO옵션

하얼빈-연길구간 야간침대열차탑승 (6인1실)



庚戌二月
孤莫孤於自恃

孤莫孤於自恃 고막고어자시

스스로 잘난체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없다

보물 제569-16호
제공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소장처 개인소장